



사회와 가치

미국의 대학교육

2005년 11월 호

미 국무부 / 국제정보프로그램국



편집장(Editor) Michael Seidenstricker
 편집실장(Managing Editor) Robin L. Yeager
 부편집장(Associate Editors) Michael Jay Friedman
 Rosalie Targonski
 참조전문인(Reference Spcialists) Mary Ann Gamble
 Kathy Spiegel
 표지디자인(Cover Design) Diane WoolvertonPhoto
 편집인(Editor).....Ann Monroe Jacobs

발행인(Publisher).....Judith S. Siegel
 주편집인(Senior Editor).....George Clack
 실무편집인(Executive Editor).....Richard W. Huckaby
 제작부장(Production Manager).....Christian Larson
 제작차장(Assistant Production Manager).....Chloe Ellis
 논설위원(Editorial Board).....Alexander C. Feldman
 Jeremy F. Curtin
 Kathleen R. Davis
 Kara Galles

표지사진(Cover photo): Ryan McVay/Taxi/Getty Images

미 국무부 산하 국제정보프로그램국은 「e저널 USA」 제호 아래 총 5종— Economic Perspectives, Global Issues, Issues of Democracy, Foreign Policy Agenda, Society & Values—의 온라인 저널을 출간하고 있으며 미국의 사회, 가치, 사상, 제도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과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저널은 통권(발행 년수)과 호수(당해 연도 발간 호수)에 따라 분류됩니다.

매달 영어로 당월호가 발간되고 난 후 2~4주가 지나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번역판이 후속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에 따라 특정 호는 아랍어, 중국어 및 기타 언어로 번역 발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저널에 실린 주장이나 의견들은 반드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 국무부는 본 저널에 링크된 인터넷 사이트들의 내용이나 액세스 가능 여부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그러한 책임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있음을 밝혀둡니다. 본 저널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도표들은 저작권 제한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재생산 또는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본 저널 상에 표시된 해당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국제정보프로그램국은 최신 호와 지난 호들을 비롯해 앞으로 발간 예정인 저널들의 목록을 다양한 파일 포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usinfo.state.gov/journals/journals.htm>). 본 저널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거주하시는 국가 주재 미국대사관이나 본지 편집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인
 eJournal USA: Society & Values
 IIP/T/SV
 U.S. Department of State
 301 4th St. S.W. Washington, D.C. 20547
 United States of America
 E-mail:ejvalues@state.gov

환영의 글



캐런 휴즈(Karen Hughes) 국무부 차관

이번 호 「e저널 USA (eJournal USA)」 독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미국 내 대학에서의 유학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 드립니다—미국은 학문과 배움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터전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제 아들 역시 지난 가을 대학에 입학한 까닭에 예비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지금이 얼마나 신나는 시기인지 저 또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관심 전공분야나 지원 대학의 규모를 불문하고 미국 내에는 사실상 거의 무한한 대학 선택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번 호가 여러분의 대학 선택에 유용한 도움을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학문탐구는 미국 내 대학을 선택하는 수많은 이유들 중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대학생들은 지적 탐구와 정치토론, 종교와 예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계 각국에서 모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학생들과 교분을 쌓고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해외유학생들은 미국 내 거의 모든 대학들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04~2005학년도 기준으로 전세계 190개국 출신의 565,000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미국 내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대학들이 본교 재학생들로 하여금 여행과 해외 대학들과의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이 문화를 풍부하게 경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호가 여러분이 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로 결정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아울러 미국에서 여러분을 환영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캐런 휴즈

공공외교 및 공보 담당 국무부 차관

들어가는 글

마가렛 스펠링스(Margaret Spellings)
교육부장관



마가렛 스펠링스 교육부장관

미국의 대학 교육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학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들은 차세대를 이끌어갈 미래의 세계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에 이르는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이 입국하고 있습니다. 해외유학생들은 저마다 특별한 목표를 품고 미국 유학길에 오르고 있으며, 그 결과로 미국에서의 대학 생활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풍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등교육제도는 다른 나라들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고도로 분권화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까닭에 대형 종합대학에서부터 커뮤니티 대학, 직업전문 대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교육 기회를 학생들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고등교육 부문에 각종 지원과 자금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중앙의 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들은 대부분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높은 수준의 독립성과 자율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제 맏딸이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떠나 보내는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제가 살아오

는 동안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들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다른 모든 학부모님들도 제가 느낀 이런 자부심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최우선순위 중 한 가지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책을 통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고등교육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을 목표로 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글로벌화된 경제구조 하에서는 최고의 전문 기술을 갖춘 인력만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급신장하고 있는 취업 부문의 약 80%는 일정 수준의 고등교육과정 이수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대학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저널은 미국 내의 다양한 고등교육 기회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호가 독자 여러분께 유용한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http://www.educationusa.state.gov>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에 대한 소개

다 양한 형태의 교육기관들로부터 사실상 무한정한 범위를 포괄하는 교과과정과 전공에 걸쳐 미국의 대학들은 국가의 총체적 가치들을 구체화하는 다양성, 관용, 최선을 추구하는 이념을 투영합니다. 이번 호를 통해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해외 거주 학생과 학부모, 상담자들은 미국의 고등교육제도와 대학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화학 전공과정을 수강한다든지, 인턴십에 참가하여 실무 경험을 쌓는다든지, 원격교육이나 인터넷 기반 확대 교과과정을 통해 교육을 받는 다든지, 예술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든지 미국의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교과과정이나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고등교육제도는 중앙정부 차원의 통제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과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헌법은 구체적으로 연방정부의 권한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모든 정부 기능을 각 주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는 대학을 포함한 기타 고등교육기관들의 설립, 운영, 규제에 관한 사항들을 대부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교육기관에 허가를 내주는 업무를 담당할 뿐 각급 학교의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증이나 보장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민영 비영리단체들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 포함된 한 상자기사에서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다양한 형태의 미국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아울러 각각의 대학 교과과정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은 기사와 함께 '전공'의 정의, 대학 생활, 미국식 교육 방식을 설명한 기사가 포함됩니다. 기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수의 자료사진들과 비디오 역시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대학 선택, 원서접수, 재정적 측면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 관련 자

료출처들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료출처들 중 가장 유용한 것이 EducationUSA가 운영하는 교육 관련 상담센터(Advising Center)와 부속 웹사이트(<http://educationusa.state.gov/>)입니다.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해외 학생들은 제반 관련서류를 준비, 제출하고,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지원신청서 접수 마감시한 최소 1년 전에는 신청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호 「e저널 USA: Society & Values」를 읽는 과정에서 저희 편집부는 대학에서 얻는 경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모든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졸업한 대학이나 현재 가족의 일원이 다니고 있거나 혹은 졸업한 대학을 취재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졸업 후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지속되는 이러한 유대감은 대학 시절의 경험이 개인의 성장 과정이나 지적 도전의 시기, 준거집단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미국의 고등교육 현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료와 사진, 기사 등을 제공해준 십여 개 대학 및 교육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료나 사진의 게재가 특정 학교나 기관을 홍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기서 밝혀둡니다.

이번 호는 미국 국민들을 글로벌 환경에 대비시키고 미래의 지도자로 활동할 해외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수학하며 서로의 경험을 교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홍보를 목적으로 국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국제교육주간(International Education Week)에 즈음하여 발간되었습니다. 2005년도 국제교육주간은 11월14일~19일 기간에 개최됩니다.

편집부 일동



SOCIETY & VALUES

미 국무부/2005년 11월호 / 통권 10권 / 제2호
www.usinfo.state.gov/journals/journals.htm

미국의 대학 교육

환영의 글

캐런 휴즈 공공외교 및 공공업무 담당 국무부 차관

소규모 사립대학들은 학생-교수간 상호작용과 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들어가는 글

마가렛 스펠링즈 교육부장관

소수인종 대상 대학

일부 교육기관들은 흑인, 히스패닉, 미국 인디언 등 소수인종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호에 대한 소개

교육기관의 유형

브라운 판결, 그 후 50년: 역사적 흑인 대학들(HBCU)이 변함없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베벌리 대니얼 테이텀 스펠먼 대학 총장

미국의 공립대학

로버트 H. 브로닉스 미네소타 대학 총장

주립대학들은 전형적으로 수만 명의 정원과 수백 분야의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흑인 학생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HBCU에 대해 소개한다.

대형 사립연구대학이란?

제임스 W. 와그너 에머리 대학 총장

종교계열 대학

데이비드 M. 오코널 아메리카 가톨릭 대학 총장

사립대학들은 자유로운 자원 조달을 통해 학문 탐구의 새로운 방향으로 과감하게 전진할 수 있다.

종교 교육기관들은 신앙에 기초한 배움의 전통이 고등교육에 '부가가치'를 제공한다고 확신한다.

미국의 커뮤니티 대학: 대중을 위한 고등교육의 관문

조지 R. 보그스 전미커뮤니티대학협회 회장

특수목적 교육기관

마이클 제이 프리드먼
국무부 국제교육프로그램국 편집진

2년제 대학들은 출신지역에서 적은 부담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술, 경영, 군사 분야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들은 특성화된 교과를 다루는 수많은 대학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다양성의 힘: 미국 고등교육의 자립형 대학

리처드 에크먼 자립대학위원회 회장

상자기사: 대학 순위, 미국 '최우수' 대학들, 경영학 및 공학 분야 우수 교과과정, 아이비리그 대학, EducationUSA, 국제적인 교육의 증진

사진: 대학 생활

밀착취재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국제 교류

마이클 제이 프리드먼
국무부 국제교육프로그램국 편집진

학제간 교과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글로벌 무대로 진출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상자기사: 미국 인증제도 개요

해외유학생들은 편안한 환경에서 글로벌 교육을 실현 중

리처드 홀든
전 알렘 대학 대학홍보국장

아프가니스탄과 케냐 출신의 유학생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열정에 대해 설명한다.

공동체 사회봉사

로빈 L. 예거
국무부 국제교육프로그램국 편집진

많은 대학들이 재학생들에게 사회봉사 교육과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한다. 그에 따라 학생들에게는 현장 교육을, 지역사회에는 지원을 제공하며 봉사정신을 함양한다.

일곱 장의 사진: 실례를 통해 본 교육 기회

이 기사는 국무부 소속 해외 현지직원들이 미국 내 7개교를 견학하고 해외 유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교육 기회를 평가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미국의 대학 시스템

대학의 전공 선택

린다 토바시
국제교육기구 대학배정서비스 국장

학생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 분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상자기사: 전공 선택과 진로 선택, 미국 대학의 학년, 학사 학위 요건, 주목할 만한 웹사이트



온라인 비디오

이방인: 해외유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해외유학생이 미국에서 보내는
처음 한 달을 영상에 담은
다트머스 대학 제작 비디오의 일부
<http://www.usinfo.state.gov/journals/itsv/1105/ijse/ijse1105.htm>

학부과정

린다 토바시
국제교육기구 대학배정서비스 국장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지, 학생들이 어떤 유형의 강좌를 수강하게 될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상자기사: 성적평가

미국 대학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리처드 홀든

미국 유학 비용을 마련하고자 하는 해외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 출처를 제공한다.

상자기사: 등록금과 전체 학비
그래픽: 학자금 예산안 작성 사례

학자금 조달 방법의 예

마르티나 솔츠
주독미국총영사관 문화공보관

학자금 지원은 학부생에 비해 대학원생에게 보다 폭넓게 제공된다.

미국 정부는 커뮤니티 대학에 입학하는 해외유학생들을 환영

제니퍼 버침
「Community College Times」 기자
전미커뮤니티대학협회

「Community College Times」에 실렸던 본 기사는 커뮤니티 대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환영'의 메시지만큼은 미국 내 모든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해외유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자기사: 해외유학생 상담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관련문헌 목록

인터넷 자료 목록

미국의 공립대학

로버트 H. 브로닉스(Robert H. Bruininks)



애리조나 대학(University of Arizona) 공과대학 학생들이 자신들이 제작해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동항공기를 조작하고 있다.

공립 혹은 주립대학들은 통상 정원이 수만 명에 이르며 수백 가지 전공에 대한 학위를 수여한다. 로버트 H. 브로닉스가 대형 주립대학들의 구성 및 재무 구조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해외유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주어지는 교육 기회에 대해 소개한다. 브로닉스는 2002년 이래 미네소타 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J. 윌리엄 풀브라이트 해외 장학 위원회(J. William Fulbright Foreign Scholarship Board)의 위원을 맡고 있다.

주립대학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 미국의 대형 공립대학들은 해당 대학이 소재하는 주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며 주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다. 주립대학은 저마다의 독특한 전통을 바탕으로 해당 주와 연계를 맺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전당으로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 동시에 역동적이면서 활기가 넘치는 장소이다. 더불어 전세계로부터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대학들은 통상적으로 수만 명의 정원을 유지한다. 주립 대학들은 상당한 숫자에 달하는 학부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배출되는 전체 대학원 및 전문학위 전공자 중 대다수를 양

성하고 있다. 또한 광범위한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있다는 점도 대형 주립 대학들의 보편적인 특징이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예를 든다면 미네소타 대학 트윈시터 캠퍼스 재학생 수는 5만 명에 이르고 수백 종의 학위를 수여하고 있으며 신경학 및 이식수술, 경제학 및 정치학, 재료공학 및 나노 공학, 농업 및 자연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립대학들은 지역의 경제, 문화, 민권 신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네소타 대학과 같은 다수의 공립대학들은 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식과 기술을 진일보시키는 데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런 대학들은 미국 내에서 주요 연구중심대학에 속하며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일익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19세기 후반 일련의 연방정부시책을 근거로 각 주마다 대학 설립에 필요한 자원이 교부된 바 있다. 이처럼 연방정부로부터의 지원을 근간으로 설립된 공립대학들은 해당 대학이 소재한 주에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다채로운 공익활동을 수행할 책임을 부여받았다(예: 기술이전, 농업부문 지원, 초·중등학교들과의 교류, 주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입안자들과의 협조).



아이스하키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지원하는 수많은 스포츠 종목들 중 하나이다.

연구의 수준은 서로 다른 주립대학들 간에 큰 격차를 보인다.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연구보조금과 최우수 공립대학만이 따낼 수 있는 계약의 연간 규모는 통상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 주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의 규모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거대한 규모의 연구예산을 운용하는 주립대학의 경우 전체 예산의 10~30%를 해당 주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예산의 나머지 부분은 등록금, 보조금/계약, 기부금 등을 통해 충당한다.

대형 주립대학들의 재원조달 구조 덕분에 다수의 대학원생들은 연구보조금 및 계약과 관련된 연구 수당을 통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록 적지 않은 수의 공립대학들이 국제교류와 유학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 확보를 모색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외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지원은 위에서 언급한 연구/보조금 재원을 제외하고는 매우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학부생들은 연구 수당을 수령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립대학에서 학부 과정에 있는 해외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대형 주립대학들은 소도시에서부터 대도시 지역에 이르는 다양한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위치하고 있다. 다수의 주립대학들은 주 경계 내에 복수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개교 이상의 공립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주들도 있다.

공립대학은 학교 이사회 혹은 평의회에 의해 운영되며 주정부에 대한 보고의무를 진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의 대학들은 연방정부의 교육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다. 또한 고등교육 정책의 입안은 대부분 주정부에 위임된다. 다만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국립보건원(NIH) 등을 포함한 연방기관을 통한 연방 학자금제정지원과 연구재원은 그러한 원칙에서 예외로 적용되는 중요한 예들이다.

미국 내 공립대학들의 일부 전통은 다른 나라들과는 매우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 주정부가 지원

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교육비의 일부를 등록금 형태로 납부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오늘날 대학생들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자금 용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립대학에서의 재원조달 프로젝트, 장학금, 교원 확충을 위한 기금조성 활동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그 결과로 대학 대항 스포츠 경기가 재학생, 졸업생, 일반대중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고 대학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수입을 올리는 효과를 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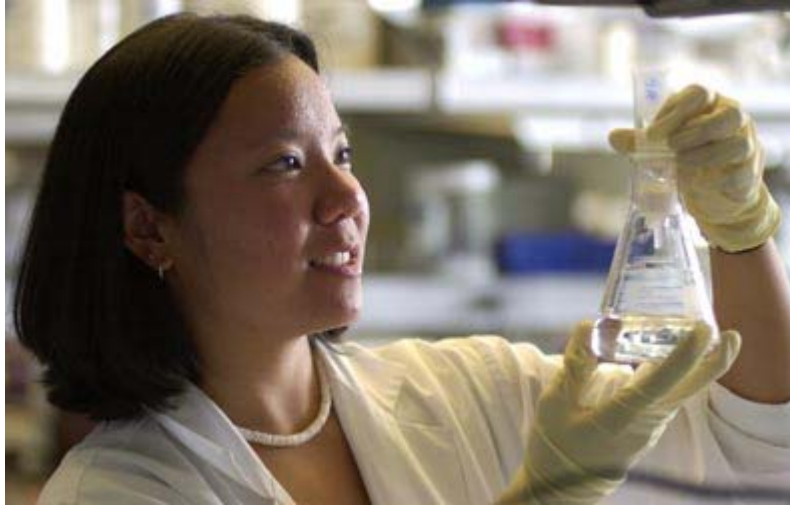
미국 내 대학들 중에서 대형 공립대학들의 해외유학생과 연구원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가 흔하다. 미네소타 대학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130개국에서 온 4,500명 이상의 해외유학생과 연구원들이 등록되어 있다. 미네소타 대학은 개인적인 고민과 학업에 관한 카운슬링 및 상담, 미국 생활과 대학 문화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이민 및 비자 상담, 어학 코스 등 학생 지원 서비스를 비롯하여 이문화간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폭넓은 주제들에 대한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다. 각 대학마다 범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느낄 수도 있는 행정 및 학사 관련 절차들을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다른 나라 소재 대학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어떤 명문대학도 해외 유학생들의 관심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 결과 공립 대학들은 차츰 전세계의 최우수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만약 귀하가 최고 수준의 지식과 창조적 활동을 추구하며 의욕으로 충만하고 자신이 나아가갈 방향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미국 내 대형 공립 대학들이 제공하는 무한한 기회를 고려해볼 것을 추천하는 바다. ■

위에 게재된 의견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형 사립연구대학이란?

제임스 와그너(James W. Wagner)



한 학생이 캘리포니아 소재 스탠포드 의과대학(Stanford University Medical School) 내 피부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조지아 주 애틀랜타 소재 에머리 대학(Emory University)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제임스 W. 와그너는 사립 연구 대학들이 공립 대학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재정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 결과 사립 대학들은 독자적인 교과 과정들을 개설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여건을 창출 수 있게 되었다.

미 국 고등교육제도의 강점은 폭넓은 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다. 전체 정원이 고작 수백 명에 불과한 소규모 대학에서부터 재학생수가 수만 명에 이르는 대형 주립 대학에 이르기까지, 2년제 커뮤니티 대학에 개설된 직업전문과정에서 사립연구대학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고등교육제도는 다양한 요구들을 만족시키고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에게 적합한 대학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장래의 진로, 금전적 제약,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학생 스스로 어떤 직업이나 공부를 원하는지, 재정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떠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 본인의 바람이 해당 대학의 조건들과 얼마나 부합하느냐 여부이다.

미국의 경우 대형 종합대학 100개교 중 92개

는 공립 혹은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연방정부가 아닌 50개 주정부 중 한 곳의 지원을 받는) 대학들이며, 미국 내 대학생의 77%가 공립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상위 25개 대학 네 곳 중 세 곳은 명문 사립대학들로 채워져 있다. 이는 미국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미국의 사립연구대학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립연구대학'을 지칭할 때 정확히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와 같은 유형의 대학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립연구대학들은 전문인력양성과정(법률, 의료, 공학 등)을 제공하며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수진은 강의 활동 이외에도 연구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한다. 실제로 이러한 대학들에서는 급여와 진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강의의 질뿐 아니라 교수진의 수준, 장학금, 연구 실적 등도 중요한 잣대가 된다. 하지만 공립대학들 역시 전문인력양성과정 및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장학금과 연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들이 선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의 해외유학생들이 로봇공학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각도와 기밀성을 시험하고 있다.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있는 에머리 대학의 한 학생이 맑은 공기 속에서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우선 사립대학들이 재정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립대학들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정부 의회의 예산 배정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졸업생, 자선단체, 과학 및 기타 전문 분야 기관들로부터 필요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기금조성 프로그램이나 장학금, 건물 기증, 교·강사진의 형태로 대학 재정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형태의 재원들은, 공립대학에서도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나, 특히 사립대학들의 경우 상황의 변화에 보다 발 빠르게 적응하고 연구 및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특화된 구심점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탐구의 방향으로 과감히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유연성은 보통의 경우였다면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을 연구 분야에 계속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이유에서 주정부의 재정 지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립 대학들은 해외에 '거점'을 세우는 사업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이를테면 조지아 주민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런던에 학술센터를 설립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립 대학인 에머리 대학이 런던에 그러한 센터를 설립한다면 조지아 주민은 아마도 그러한 결정을 환영하고 나설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립 대학들은 연구, 서비스, 교육을 위한 국제적인 포탈을 개설하는 사업에서 제약을 적게 받는다. 예를 들어 에머리 대학은 아프리카 전역과 코카서스 지역, 아시아 등지에서 국제적인 보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에서 경영학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미국에 있는 학생과 교수들은 미국을 위시한 세계 각지에서 해외의 최고 지성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연구 대학들은 공립 대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형이 작기 때문에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인력을 최적 조건으로 결합시킬 수 있다. 미국 내 명문대학이라면 공립·사립의 구분 없이 우수한 교육과 연구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립대학 캠퍼스들은 규모가 작다는 이점을 발판으로 학제간 교류를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다. 단과 대학들과 학과들이 도보로 왕복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리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학문적 경계를 초월한 협력을 통해 중대한 업적들이 이룩되는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할 때 캠퍼스 울타리 안과 밖, 그리고 지구상 아무리 먼 곳이라도 구애 받지 않고 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이야말로 사립대학이 자랑할 수 있는 최대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위에 게재된 의견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커뮤니티 대학: 대중을 위한 고등교육의 관문

조지 R. 보그스(George R. Boggs)



오하이오 주 소재 오언스 커뮤니티 대학(Owens Community College)에 재학중인 한 학생이 예술과목 강좌를 위해 주택설계 도면을 제작하고 있다.

2년제 대학들은 많은 경우 4년제 대학에 비해 저렴한 학자금을 투자하여 재학생들이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대학에서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미 커뮤니티 대학 협회 회장 겸 CEO인 조지 R. 보그스는 커뮤니티 대학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들을 설명했다.

미 국 내 고등교육의 관문으로서 커뮤니티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대학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인증교육기관으로서 4년제 학사과정의 최초 2학년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등록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우수한 지원 환경 하에서 공부하는 동시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

한 학생들에게 학위 관련 혹은 학위를 요하지 않는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광범위한 성인층을 대상으로 성인계속교육과 자기계발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커뮤니티 대학 부문은 미국 고등교육계에서 가장 급속하고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 인증을 획득한 1,200여 커뮤니티 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1,100만 명(미국 내 전체 학부생 숫자의 약 46%) 이상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다.

미국의 커뮤니티 대학들은 해외유학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어학연수 코스와 미국 지역사회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과정들이 포함된다.

커뮤니티 대학의 이점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속의 센트럴 피드몬트 커뮤니티 대학(Central Piedmont Community College) 학생들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커뮤니티 대학 생활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한다.

저렴한 비용. 4년제 대학에 비해 등록금 부담이 훨씬 적다(4년제 대학의 경우 1년 등록금이 12,000달러에서 20,000달러 사이인 데 반해 커뮤니티 대학은 5,000달러 수준).

유리한 종합대학 편입. 미국의 '2+2' 제도는 2년제 대학과 4년제 종합대학 간의 효율적인 '상호학점인정'을 가능케 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커뮤니티 대학들은 4년제 대학들과 상호학점인정협정을 체결하여 커뮤니티 대학 재학 중에 취득한 학점을 4년제 과정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인증기관. 미국 내의 모든 커뮤니티 대학과 4년제 대학, 주요 종합대학들은 동일한 기관들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커뮤니티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종합대학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다양한 교과과정. 커뮤니티 대학들은 수백 종의 전공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영학이나 컴퓨터공학, 엔지니어링, 의료 관련 교과과정 등 인기 분야들이 포함된다.

어학연수과정. 대다수의 커뮤니티 대학들은 다양한 단계별로 구성된 광범위한 영어연수 과정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떤 수준에 있는 학생이라도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우수한 교육환경. 커뮤니티 대학의 과목 당 학생수는 평균 30명 이하의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가능하다. 학생들의 수학 패턴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환

경 속에서 모든 학생이 학업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학생 지원 서비스의 구체적인 예로는 개인교습, 상담, 작문교실, 해외유학생 클럽, 해외유학생 서비스센터 등을 들 수 있다.

다양성. 미국 내 커뮤니티 대학 학생층은 다채로운 문화·인종적 배경으로 구성된다. 각 대학들은 미국 사회를 대표하는 특징인 다양성을 지지하고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 및 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문화에 대한 접근. 커뮤니티 대학들은 해당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기 때문에 굳건한 지역적 유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외유학생들은 현지 미국인들과 소통하고 미국 문화를 경험하는 값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양한 지리적 입지와 캠퍼스 규모. 다른 미국 내 교육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대학들 역시 대학들 간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규모가 크고 대도시 지역에 복수 캠퍼스를 운영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교외에 위치하여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대학도 있다. 미국 전체인구의 90%는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에 커뮤니티 대학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다.

학교를 빛낸 졸업생. 커뮤니티 대학을 졸업한 인사들로는 아놀드 슈왈츠체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패리스 클렌드닝 전 메릴랜드 주지사, 에일린 콜린스 우주왕복선 선장, 영화 스타워즈의 제작자이자 감독인 조지 루카스, 영화배우 톰 행크스와 클린트 이스트우드, 패션디자이너 캘빈 클라인, 인간계놈 권위자 크레이그 벤터, 리처드 카르모나 공중위생국장 등이 있다.

미국 내 커뮤니티 대학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원한다면 <http://www.CC-USA.org>를 방문하거나 해당 지역의 EducationUSA 상담센터에 비치된 『미국 커뮤니티 대학 진학 가이드(A Guide to Studying at U.S. Community Colleges)』를 참조할 수 있다. ■

위에 게재된 의견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성의 힘: 미국 고등교육의 자립형 대학

리처드 에크먼(Richard Ekman)



징바브웨 출신의 한 학생이 매사추세츠 소재
마운트 홀리오크 대학(Mount Holyoke College)
졸업식장에서 기뻐하고 있다.

4년제 사립대학들은 주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리처드 에크먼 자립대학 위원회 회장은 어떤 점들이 사립 혹은 자립 대학들을 공립대학들과 차별화시키는지 설명한다.

미 국 고등교육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다양성이다. 연방정부는 각 대학들의 교과과정이나 교수법에 일절 간여하지 않으며 주정부 역시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고등교육제도 하에서 교육철학이나 교과과정, 전통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문은 ‘자립’ 또는 ‘사립’ 대학들이다. 600여 소규모 대학들이 이 부문을 구성하며 이 중에는 미국 최고 명문대학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일부 대학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펜실베이니아 주 소재 얼시너스 대학(Ursinus College)은 입학 첫해 신입생들이 광범위한 인문·사회과학 원서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제간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소재 워런 윌슨 대학(Warren Wilson College)은 모든 재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노력 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교육이념의 일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스콘신 주 소재 노스랜드 대학(Northland College)은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 주 소재 얼더슨-브로더스 대학(Alderson-Broaddus College)은 신입생 대부분을 웨스트버지니아 지역의 소도시 출신자들 중에서 선발하고 있으며 졸업생의 상당수는 과학 및 의료 분야로 진출한다. 케이커교도들에 의해 인디애나 주에 설립된 얼햄 대학(Earlham College)은 주요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캠퍼스 구성원 전체가 참가하는 만장일치 제도를 전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 소재 시더 크레스트 대학(Cedar Crest College)은 여자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과학 전공 졸업생들을 배출함으로써 여성이 과학 분야에 약하다는 통념을 깨고 있다.

600개 교에 이르는 이들 자립대학들은 각기 상이한 특징을 보유하는 한편 다수의 공통점 또한 공유하고 있다.

- 대학의 규모가 작고, 대개 신입생 수가 3천 명을 넘지 않는다.
- 대학원 과정을 거의 개설하지 않으며 학사행정의 대부분 혹은 전부가 학부 위주로 운영된다.
- 교수진 전체가 강의만을 전담한다. 일부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부차적인 의무로 간주되며, 교·강사들은 강의실 안팎에서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



매사추세츠 주 소재 웰슬리 대학(Wellesley College)의 학생들이 지도교수들과 함께 24시간 연속 세익스피어 강독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오하이오주 소재 오벌린 대학(Oberlin College)의 음악 전공 학생들이 아르헨티나 연주자들과 함께 오페라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음악교육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이 대학은 여성과 흑인 학생들을 최초로 입학시키고 배출한 대학으로도 유명하다.

- 교수-학생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는 교수법을 채택한다.
- 이러한 대학들은 교육의 상당 부분이 강의실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상호간, 학생-교수 간 상호작용의 기회가 잦으며, 이를 교과과정에 수반되는 중요한 축으로 평가하고 있다.
- 이러한 대학들은 추구하는 가치관을 대외적으로 표명한다. 일부의 경우에는 대학을 설립한 교과의 종교적 이념이 반영되기도 한다(현대에 이르러 그러한 교과의 영향력이 약화된 경우에는 종교적 이념의 일부분만이 반영된다). 때로 이러한 가치관들은 대학의 독특한 교육이념으로 투영되기도 한다. 메릴랜드 주와 뉴멕시코 주에 캠퍼스를 둔 성요한 대학(St. John's College)으로 대표되는 '위대한 고전(great

books)' 대학들이나 학업 외에도 학교를 위한 육체노동을 의무화하고 있는 워런 윌슨 대학과 켄터키 주 소재 베리아 대학(Berea College) 등과 같은 소위 '노동 대학'들이 그와 같은 예들에 속한다.

- 이러한 대학들은 학생의 전공 분야를 불문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 졸업 후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믿는다.

이처럼 자립대학들에 의해 대변되는 고등교육 방식은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례로 소형 사립대학 학생들의 학위 취득률이 대형 주립대학들에 비해 높게 집계된다. 게다가 이러한 격차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 집단뿐만 아니라 입학 전 중등학교 졸업 성적이나 SAT (<http://www.collegeboard.com>) 점수가 낮았던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 세대가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학교 수업 외에 직장을 다니거나, 소수인종집단 출신의 학생들처럼 통상적으로 대학진학률이 낮은 사회경제 집단의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위 취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형 사립대학들의 상대적 우위는 '참여하는 교육'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학생참여에 관한 국가 설문조사(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수백 개의 대학이 참여)의 창설자인 조지 커(George Kuh)는 성공적인 대학 생활의 요건으로 교수와의 인적 교류, 과외활동 참가, 지역사회 기반의 인턴십 참여, 구두 보고서나 빈번한 서면 과제물을 요구하는 강좌처럼 적극적인 교수법을 채택한 과목의 수강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요건들은 대형 대학보다 소형 대학에서 충족될 가능성이 더 높다.

소형 자립대학들은 미국 내 주요 대도시, 소도시, 교외 지역 등지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들은 다양한 배경을 갖춘 학생들이 저마다 독특한 재능과 목표를 캠퍼스에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긴 하지만) 해외에서 성장한 학생들은 대학으로부터 크게 환영 받는다.

이들 대학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각 대학의 웹사이트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자립대학 위원회 웹사이트(<http://www.cic.org>)는 대부분의 대학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한다. ■

위에 게재된 의견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수인종 대상 대학



루이지애나 주 소재 그램블링 주립 대학 (Grambling State University)의 마칭밴드는 뛰어난 연주실력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관련 웹사이트와 기타 자료들을 근거로 구성된 본 기사는 흑인, 히스패닉, 아메리칸 인디언 등 3개 소수인종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수인종 대상 대학들은 소수인종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주목적만을 둔 기타 범주의 대학들(주립대학, 사립대학, 종교계열 대학, 교양중심대학, 커뮤니티 대학)을 지칭한다. 이 대학들은 특정 인구집단 출신의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역사적 전통 혹은 취지로 삼고 있으나, 소수인종 출신이 아닌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들 대학은 공동의 이해와 문제들을 바탕으로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조직들로 ‘역사적 흑인 대학(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HBCU)’과 ‘히스패닉 대학 연합(Hispanic Association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HACU)’, ‘아메리칸 인디언 고등교육 컨소시엄(American Indian Higher Education Consortium, AIHEC)’이 결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소수인종들을 위한 대

학을 지원하는 다수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역사적 흑인 대학

백악관의 ‘역사적 흑인 대학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역사적 흑인 대학(HBCU)은 미국 내 흑인 공동체와 미국 국가 전체의 자긍심과 성취감의 원천이다. 1965년 제정되어 이후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역사적 흑인 대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흑인 교육을 취지로 1964년 이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인정된 인증교육기관이나 (교육부) 장관에 의해 교과과정의 질과 관련된 분야에 신인도를 갖춘 기관으로 결정된 협회에 의해 인증되었거나, 그러한 기관이나 협회의 판단에 의거하여, 인증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합리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역사적 흑인 대학.”

2005년 9월 11일~17일을 ‘전미 역사적 흑인 대학 주간’으로 선포하는 2005년 9월 연설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HBCU들이 높은 수준의 기준들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세대들이 미래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적 시책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치하했다. 그는 “이러한 가치 있는 교육기관들이 높은 수준의 기준들을 유지하고 모든 미국인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본인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풍요롭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모든 개인이 미국의 원대한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해 부단히 전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체 105개 HBCU 중 과반수 이상이 미국 남동부 지역 주들과 워싱턴 DC, 버진아일랜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중에는 4년제 공립대학 40개교, 2년제 공립대학 11개교, 4년제 사립대학 49개교, 2년제 사립 교육기관 5개교가 포함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HBCU 주간을 다룬 특집기사 (<http://usinfo.state.gov/scv/Archive/2005/Sep/26-256508.html>)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히스패닉 대학 연합



히스패닉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뉴멕시코 주 소재 산타페 대학(College of Santa Fe)의 학생들이 피트니스 강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히스패닉 대학 연합(HACU)은 18개 교육기관을 창립회원으로 1986년에 창설되었다. 현재 HACU는 미국, 푸에르토리코,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 등지에서 히스패닉계 학생들을 위한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400개 이상의 대학들로 구성되어 있다. HACU 회원기관들은 미국 내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10%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전국 히스패닉계 대학생의 4분의 3을 담당하고 있다. HACU는 히스패닉 대상 교육기관들(HSI)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전국 규모의 교육 관련 단체이다. 전국 205개 HIS에서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학내 학생구성체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회원기관들에서는 히스패닉계 학생들의 비중이 25%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http://www.hacu.net/hacu/Default_EN.asp를 참조할 것.

백악관의 트라이벌 대학 이니셔티브

부시 대통령은 트라이벌(tribal) 대학들이 아메리칸 인디언 공동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2002년 7월 3일자로 트라이벌 대학(tribal college)에 관한 행정명령 제13270호에 서명했다. 동 행정명령에 의거하여 트라이벌 대학에 관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가 신설되었고 ‘트라이벌 대학 이니셔티브’가 도입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트라이벌 대학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언어와 문화적 전통을 보존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와 동시에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대학 교육을 제공하며 인디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과 기타 경제적 개발의 수단을 제시합니다…… 트라이벌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미국 국민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34개교가 연방정부로부터 트라이벌 대학으로 공식 인정 받은 상태다. 주로 미국 중서부와 남서부 지역에 있는 트라이벌 대학들은 약 3만 명에 이르는 전업 및 파트타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개 이상의 전공분야에서 2년제 학위를 수여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들은 학사 및 석사학위를 수여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 대학은 200중에 이르는 직업자격증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트라이벌 교육기관들이 아메리칸 원주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미국 고등교육제도의 특수한 단면을 보여주는 구실을 하고 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2/07/20020703-16.html>에서 얻을 수 있다. ■



캔자스 주 소재 하스켈 인디언 네이션 대학(Haskell Indian Nation University)의 학생들이 퍼레이드를 위해 자동차를 장식하고 있다.

위에 게재된 의견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브라운 판결, 그 후 50년: 역사적 흑인 대학들이 변함없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베벌리 대니얼 데이텀



강의 중 토론 시간에 한 학생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흑인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배경과 목적을 지닌 다른 교우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흑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역사적 흑인 대학에 대해 베벌리 대니얼 데이텀이 설명한다. 그녀는 조지아 주 애틀랜타 소재 스펠먼 대학(Spelman College)의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흑인 학생들은 왜 식당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앉는가?』와 인종에 관한 다른 대화들(베이직 북스, 2003년)을 저술한 저자이기도 하다.

나는 헌법재판소에서 1954년 브라운 판결을 통해 ‘평등한 분리주의’ 인종차별 교육원칙을 위헌이라고 결정하기 불과 넉 달 전에 태어났다. 내가 태어난 곳은 플로리다 주 텔러해시로 당시 내 아버지는 플로리다 A&M 대학에서 예술 과목의 강의를 맡고 계셨다. 그는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했지만, 1954년까지 플로리다 주는 흑인 대학원생의 입학에 허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주정

부에서는 펜실베이니아 주로의 기차요금을 보조해주었고 아버지는 1957년에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그로부터 1년 뒤 그는 매사추세츠 주 브릿지워터에 있는 브릿지워터 주립대학(Bridgewater State College) 최초의 흑인 교수로 임용되었고 나는 그곳에서 성장했다. 현재 브릿지워터 주립대학은 최초의 유색인종 출신 총장을 임명한 상태이며, 흑인 여성인 내가 플로리다 주에서 개최된 고등교육 관련 총회에서 개최사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 모든 일들은 1954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주로 백인 학생을 대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들에서 인종차별에 관한 과목들을 오랜 기간 강의해 온 교육자로서, 그리고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역사적 흑인 여자 대학인 스펠먼 대학의 제9대 현직 총장으로서 나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 브라운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되었다. 다른 HCBU들과 마찬가지로 스펠먼 대학 역시 이전까지는 흑인들을 입학시키지 않았던 대학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처지에



스펠먼 대학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치열해진 경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스펠먼 대학은 중요한 교육 여건들을 개선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브라운 판결 이후 교수들은 연구 및 논문발표 실적을 끌어올리도록 대학 당국으로부터 적극적인 독려를 받게 되었고 신규 장학금 재원이 확보되었다. 성공적인 기금조성 노력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은 대학의 재정적 안정은 물론 기숙사와 교육동을 새로 건립하는 사업에 투자됐다. 그 결과 525명 신입생 정원에 매년 4천여 명의 지원자가 응시하는 뛰어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스펠먼 대학과 같은 역사적 흑인 대학들이 단 순히 명맥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수한 흑인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 선택은 곧 개인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지금의 자신은 누구인지, 미래에 어떤 인간이 되기를 희망하는지를 밖으로 표출하는 방식인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존재감이 강력하게 반영되는 교육환경, 해당 교육제도 내에서 자신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대학에 매력을 느끼게 된다.

몇 년 전, 주로 백인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성장한 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종적 정체성 발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흑인 대학을 선택한 학생들과 면담을 실시한 적이 있다. 한 여학생은 흑인 대학에서의 생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캠퍼스를 거닐다가 ‘여기가 바로 나를 위해 마련된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흑인 여학생이 그런 만족감을 표현할 만한 장소는 미국 내에 그리 많지 않다. 대학 선택 과정에서 정체성의 확립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1954년에 비한다면 오늘날 대다수 대학 캠퍼스들은 현격하게 다양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각 교육기관들은 재학생 전체의 지적 능력과 리더십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포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ABC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각급 교육 단계에서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뒷받침하는 이들 세 가지 원칙들은 정체성 확보(affirming identity), 공동체 구축(building community), 리더십 배양(cultivating leadership)으로 구성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제기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들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교육환경에서 누가 고려 대상이 되고 있는가? 전체 그림에서 누가 빠져있는가? 공동체를 구축하고, 이견을 좁히기 위한 대화를 진작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다양한 형태로 리더십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어떻게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가?

필자 본인이 인종문제 전문가인 까닭에 주변에서 스펠먼 대학과 같이 ‘동질적인’ 교육기관을 맡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런 질문은 오류를 포함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재학생의 97%가 ‘흑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성은 매우 다양하다. 스펠먼 대학 입학생들은 미국 전역과 해외 각국 출신자들로, 도심 흑인 거주지역뿐만 아니라 백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교외와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를 떠나 전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흑인 집단을 대표하며, 재학생 개인의 다양한 경험과 목표들을 기초로 구성원들 사이의 교류를 위한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유색인종 젊은이들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집단 내’ 교류의 중요성은 ‘집단간’ 교류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 높은 경우도 적지 않다. HBCU라는 환경에서도 두 가지 교류 모두를 위한 기회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많은 이들이 이상적인 대학에 대한 비전으로 모든 재학생들이 높은 성취를 이룩할 수 있고 그를 위한 격려를 받는 곳을 떠올린다. 이는 평등하고 공정한 집단 관계로 특징지을 수 있는 다인종 공동체의 비전이며,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 말하기, 쓰기, 수리능력의 도구들을 제공함으로써 지적 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다양성으로 정의되는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는 비전이기도 하다. 이처럼 이상적인 교육환경이 미국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구현됐던 적은 아직 없다—또한 필자가 알고 있는 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실현된 바 없다. 하지만 이러한 비전이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위에 게재된 의견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종교계열 대학

데이비드 M. 오코넬 천주교 신부
(Very Reverend David M. O'Connell, C.M.)



워싱턴 DC 소재 아메리카 가톨릭 대학(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의 학생이 평화로운 장소를 찾아 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미국의 종교계열 대학들은 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종교와 학문을 결합시키고 있다. 아메리카 가톨릭 대학의 총장이자 종교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하버드 대학이 주관한 학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바 있는 데이비드 M. 오코넬 신부가 종교대학들이 고등교육에 기여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한다. 본 기고문에 이어 일부 다른 관점들의 예를 제시하기 위해 기타 종교계열 학교들에 관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특정 학교의 구체적인 교육 정책이나 이념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는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하면 완전한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이번 호에 실린 정보들은 특정 대학의 이념이나 교육과정을 홍보하거나 인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독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포함되었다.

미 국 내 대학들 간에 신입생 유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각 대학들은 미래의 고객들을 상대로 타교와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강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분명 모든 대학들은 이 러저러한 분야에서의 '학문적 우수성'이나 '최고의 교육과정'을 내세우겠지만, '차이점'을 증명할 수 있

는 다른 기준은 과연 없을까? 일반 대학들과 달리 종교 교육기관들은 신앙이라는 요소를 그러한 차이점으로 간주한다.

이는 특정 종교나 신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학의 경우 해당 대학이 (1) 자신의 고유성과 차별성에 대한 인식과 (2) 신앙을 통해 고등교육에 기여하고 있다는 확신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이성을 통해 인간의 경험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 교육은 인간의 영혼을 계몽한다. 종교적 교육은 같은 목적에서 이성과 신앙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파악한 절대자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경험을 규명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종교적 교육은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계몽한다. 종교적 교육을 통해 우리는 이성적 정신에 의해 지식으로 감지되는 동시에, 신앙을 품은 가슴과 영혼에 의미를 부여하며 심오한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진실과 대면하게 된다. 필자는 '종교는 사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의미에 관한 문제이다'라는 구절을 읽은 적이 있다.

종교 대학들은 이성과 신앙을, 하나의 통합된 진실을 구성하는, 서로 구별되지만 연관을 맺고 있는 두 요소로 간주하려고 노력하며 둘을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평가



전미 여자농구대회 연습 도중 서인도제도 성빈센트 출신의 베일러 대학(Baylor University) 학생이 남부 침례교 계열 텍사스 대학의 팀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와 인정을 받고 있는 명문 교육기관들 중 일부가 종교적 신앙 고백에서 학교의 뿌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은 이채롭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로 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러한 종교적 관련성이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약화되었고 고등교육 부문에 있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모델과 접근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순수하게 비종교적인 모델/접근법과 종교적 모델/접근법이 그것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종교 대학을 선택할 때는 고유한 종교적 전통에 뿌리를 둔 고유의 정체성이나 취지를 보유한 학교를 고르게 된다. 그러한 전통은 해당 대학 전체와 그 운영 및 활동 전반에 고루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전통은 강의실 안에서는 물론 캠퍼스 내 학교 생활을 통해서도 명확히 투영되어야 한다. 교수진 및 교직원 역시 대학의 설립취지에 적극 동

참해야 하며 그러한 취지가 학교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적당히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학이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적인 특성을 갖춘다면 캠퍼스 안팎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해당 대학과 그 설립취지를 토대로 고등교육에 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점과, 이 부가가치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해당 대학에 의해 고유하게 제공된다고 사람들이 믿는 가치들이 진정한 자신들이 원하는 그 무엇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이를 통해 그들의 교육과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종교 대학들이 자신들을 종교 교육기관인 동시에 학문적으로도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대중에게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은 중국에 가서는 미국 고등교육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한 진정한 다양성을 진일보시키는 데 기여할 자신들의 설립취지를 이행할 역량과 장기적인 존속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이는 미국 가톨릭 교회 산하의 국립대학인 워싱턴 DC 소재 아메리카 가톨릭 대학의 확고한 교육 이념이기도 하다 ■

위에 게재된 의견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캠벨 대학(Campbell University)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남부 침례교(개신교) 계열의 대학으로서 재학생들로 하여금 신체와 정신, 영혼의 전인적 완성으로 대별되는 통합된 기독교적 인간상을 구현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에는 비판적 사고 방법, 지적·문화적·종교적 인류 유산에 대한 감상, 신체에 대한 책무, 타인과 어울려 생활하고 일하는 세상과 사회에 대한 민감한 인식이 포함된다. 캠벨 대학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신앙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인간의 소명으로 간주하며 신앙과 진리 추구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브랜다이스 대학(Brandeis University)은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하고 있는 신설 사립연구대학이며 유대인들의 후원으로 설립된 대학으로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특정 종파에 속하지 않는 재단이다. 브랜다이스 대학 설립이념에 따르면 브랜다이스 대학은 1948년 미국 유대인 공동체의 후원으로 최고 수준의 윤리적·문화적 가치를 구현하고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열을 통해 미국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어느 특정 종파에도 속하지 않는 대학으로 설립되었다. 국적,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학생과 교수, 교직원을 받아들이는 브랜다이스 대학의 설립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지지하는 미국의 유산, 기회의 평등, 표현의 자유 등의 가치들이 새롭게 조명 받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퍼시픽 루서런 대학(Pacific Lutheran College)은 루터교 정착민들에 의해 워싱턴 주에 설립되었다. 퍼시픽 루서런 대학은 봉사하는 삶에 대한 교육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교과과정 통합과 적극적인 배움에 중점을 두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트포드 대신학교(The Hartford Seminary)는 회중교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코네티컷 주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기독교 교과과정 외에도 이슬람 및 기독교-회교 관계 연구를 위한 던컨 블랙 맥도널드 센터(Duncan Black Macdonald Center)가 부설되어 있으며 석사과정으로 이슬람 사목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 학교의 목표는 지도자·학생·학자·종교단체들로 하여금 현대의 다종교 및 다원사회를 이해하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대비시키고, 대중을 계도하고 연구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대화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며, 차이점과 공통점을 공개적으로 모색하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와 신앙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신을 섬기는 데 있다.

특수목적 교육기관

마이클 제이 프리드먼(Michael Jay Friedman)



메릴랜드 주 소재 미 해군사관학교의 인공위성 설계 과목 참가자들이 강사와 함께 실습에 몰두하고 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따라 두 개의 인공위성이 궤도에 올라있다.

미국에는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대학들이 설립되어 있다. 저자는 예술, 경영, 군사 분야에 특성화되어 있는 일부 대학들을 소개한다. 마이클 제이 프리드먼은 미 국무부 산하 국제정보프로그램국에서 편집진의 일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미 국 내 대다수 대학들은 광범위한 전공 분야들을 개설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들은 매우 특성화된 교과과정을 제공한다. 미술이나 공연예술, 경영 및 기술, 군사 교육 등 고유한 영역에 주력하는 이들 학교들은 재학생들로 하여금 특정 분야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교육 방식이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상적인 모델은 아니지만 일부 학생들의 경우 자신에게 적합한 특성화 교육기관을 선택하면 본인의 특출한 재능을 키우고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며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진 동료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본 기사에서 언급된 학교들은 수많은 특수목적 교육 기관들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뉴욕 시에 있는 세계 유수의 줄리어드 음악원(Julliard School)은 재학생들에게 음악, 무용, 연기 분야에서 프로 무대로 진출하기 전 단계의 교육을 제공한다. 미국 내 43개 주와 전세계 43개 국에서 신

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쟁쟁한 졸업생 중에는 클래식 부문의 이작 펠먼, 요요 마, 핀카스 주커만과 재즈 연주자로서 셀로니어스 몽크와 윈튼 마살리스 그리고 소프라노 레온타인 프라이스와 재즈 보컬리스트 니나 시몬 등이 있다. 1971년 이래로 줄리어드 대학은 미국 예술의 심장부로 여겨지는 맨해튼 소재 링컨 센터 내에 입주해 있으며, 이곳에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뉴욕 필하모닉 교향악단, 재즈앳링컨 센터 외에도 8개 예술 단체들이 상주하고 있다.

비교적 신설 대학에 속하는 조지아 주 서베너 소재 서베너 예술·디자인 대학(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 SCAD)은 학생들이 시각 및 공연예술, 디자인, 건축예술, 예술사 및 건축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처럼 특성화를 통해 서베너 대학은 여타 연구대학이나 교양중심대학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전공들을 개설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광고디자인, 애니메이션, 상업사진술을 위시한 십여 가지의 전문화된 전공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야들로의 진출에 관심을 가진 다수의 학부과정 학생들은 전문 지식을 집중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높게 평가한다. 폴라 S. 윌러스 총장의 표현을 빌자면, “SCAD 학생들은 자신들의 예술적 비전을 전문적 기술과 성공적 미래로 발전시키기 위해 창의적인 비전과 기술적인 전문성을 결합”시키고 있다.



빅터 고인즈가 예술감독으로 있는 뉴욕시 소재 줄리어드 음악원 내 대학 재즈 밴드

디자인이나 예술 분야로의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은 SCAD나 줄리어드 같은 학교를 선택한다. 한편 다른 많은 학생들은 기업계나 첨단기술 부문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원한다. 흔히 이 부류에 속하는 학생들은 나이가 많고,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곳이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 영리교육기관'이다. 미국 전역에 설립되어 있는 70개 이상의 캠퍼스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드브라이 대학(DeVry University)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교육기관들은 대개 대학 밖에서 이미 본업을 가지고 있는 시간강사 혹은 겸임강사들을 고용하여 실용 위주의 교육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립 영리교육기관들은 야간과 주말 강좌를 다양하게 개설하고 파트타임 수업을 권장함으로써 직장을 병행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자녀를 둔 부모들의 빡빡한 시간에 학사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컴퓨터공학이나 프로그래밍, 경영학, 기타 기술 관련 분야 과목들의 인기가 높다. 일부 미국 기업들은 성인계속교육을 추구하는 직원들에게 학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조하기도 하며, 그 중 가장 인기 있는 분야가 MBA 과정이다.



조지아 주 소재 서베너 예술·디자인 대학의 교수와 학생이 애니메이션 수업 도중 가상 모형 캐릭터를 들여다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미국 대학들은 사립 교육기관 아니면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해양경찰대학, 해양수산대학은 연방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메릴랜드 주 아나폴리스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의 예를 들면, 입학허가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며 의원, 대통령, 부통령, 해군장관이 추천한 학생('해사 생도'로 지칭)들이 포함된다. 해사 생도는 연령, 신체, 학력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며 미혼이어야 한다. 미국 시민권 역시 반드시 요구되거나 국제교류 및 외국 해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국방장관 추천으로 외국인도 60명 정원으로 입학시킬 수 있다. 1976년부터 여자 생도의 입학이 허용되고 있으며, 2009년도 졸업학번의 경우 입학생의 약 5분의 1이 여생도로 구성되어 있다.



일리노이 주 애디슨 소재 드브라이 대학 캠퍼스의 한 학생이 텔레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모든 생도들은 등록금과 기숙사비 전액을 면제받으며 매달 수당을 수령한다. 교과과정은 수학, 공학, 해군학 등에 중점을 두며, 다수의 생도들이 해양학, 우주항공공학, 해양토목공학 등 해양 관련 전공을 선택한다. 그 외에도 역사학, 경제학, 기타 전공 분야를 선택하는 생도들도 있다. 졸업생은 해군 소위나 해병대 소위로 임관하며 최소 6년 간 현역에 의무 배치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미국에서 찾을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기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에 불과하다. 특수목적 교육기관들은 파트타임 수강생, 자녀를 둔 부모, 직장인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대학이나 교양중심대학들의 결점을 보완한다. 더불어 보다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남다른 재능을 가졌거나 확고한 목표가 선 학생들의 재능을 계발하고 그들이 원하는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대학 순위

진 학 상담자들은 대학을 선택할 때 지방 대학의 교과과정, 규모, 학풍, 비용, 입지 등을 고루 고려할 것을 한 목소리로 조언한다. 미국 내 수천 개 대학 중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찾고자 하는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대학 순위 관련 지침서들을 몇 가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피터슨(Peterson's)사와 카플란(Kaplan)사는 교육을 주제로 한 다양한 책자들을 발간하고 있다. 피터슨사는 『경쟁력 있는 대학에 관한 피터슨 가이드(Peterson's Guide to Competitive Colleges)』라는 제목의 지침서를 출간하고 있으며, 카플란사는 『카플란 출판사가 선정한 주요 관심 대학(Kaplan Publishing's Most Interesting Colleges)』과 『2005년도 331개 주요 관심 대학에 관한 비공식 공평 가이드(2005—Unofficial Unbiased Guide to the 331 Most Interesting Colleges)』를 내놓고 있다.

- 주요 신문사의 교육 전문 필진들 역시 자체적으로 추천 대학을 발표하고 있다. 뉴욕타임즈에서 오랜 기간 교육 전문 필진으로 활동해온 로런 포프(Loren Pope)는 『로런 포프가 선정한 인생을 바꾸는 대학들—우등생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40개 대학(Loren Pope's Colleges That Change Lives, 40 Schools You Should Know About Even if You're Not a Straight-A Student)』을 출판한 바 있으며, 역시 뉴욕타임즈에서 교육 논설위원으로 재직했던 에드워드 B. 피스크(Edward B. Fiske)는 『피스크 대학 가이드(Fiske Guide to Colleges)』를 집필하였다. 워싱턴포스트의 교육 전문 필진인 제이 매튜스(Jay Matthews)는 자신의 『하바드 쉬마바드: 아이비리그를 뛰어넘어 당신에게 꼭 맞는 대학(Harvard Schmarvard: Getting Beyond the Ivy League to the College That is Best for You)』에서 다시 한번 눈 여겨 볼 만한 상위 10개 대학들을 소개하고 있다.

-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템플턴 재단은 『템플턴 가이드: 인성 개발을 돕는 대학들(The Templeton Guide: Colleges That Encourage Character Development)』을 출판한다.

- 베테랑 대학 진학 상담자인 프레드릭 E. 러그(Frederick E. Rugg)는 『러그의 추천 대학(Rugg's Recommendations on the Colleges)』에서 단순히 대학을 추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명문 대학의 우수 학과들을 소개하고 있다.

- 『예일 데일리뉴스의 재학생들이 평가한 2005년도 대학 가이드(Yale Daily News's The Insider's Guide to the Colleges 2005)』는 대학 측 자료가 아닌 학생들과의 면담을 기초로 300개 이상의 대학들을 대상으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주요 잡지들 역시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몇몇 잡지는 대학 순위를 다른 특집호를 꾸며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 중 가장 영향력이 높고 널리 인

용되는 것이 「US뉴스앤월드리포트」지가 발표하는 ‘미국 최우수 대학’과 ‘미국 최우수 대학원’ 순위이다.(<http://www.usnews.com/usnews/home.htm>)

US뉴스는 다양한 범주를 적용하여 대학 순위를 매기고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범주들에는 전국대학(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한 순위), 대학원과정 대학(지역별 분류), 최우수 경영학 과정, 최우수 교양중심대학, 최우수 공학 과정을 비롯하여 재학생의 50% 이상이 교양과목(지역별 리스트에 포함) 이외의 다른 분야를 전공하는 학부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우수 대학들의 리스트인 최우수 종합 대학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대학 관련 정보 제공처는 어바나-삼페인 소재 일리노이 대학의 교육 및 사회과학 라이브러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각종 온라인 대학 순위 서비스나 기타 대학 관련 정보 제공처는 물론 각 순위 간의 상대값을 비교하는 일부 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한다.(<http://www.library.uiuc.edu/edx/rankings.htm>)

미국 ‘최우수’ 대학들

U.S. 뉴스앤월드리포트지에 따르면 미국 ‘최우수’ 대학으로 손꼽히는 수백 개의 대학들은 공립 혹은 주립대학과 사립대학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대학들은 우수한 교과과정을 필두로 첨단 연구시설이나 도서관 등 훌륭한 지원시설, 폭넓은 졸업생 및 후원자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또한 광범위한 학부 전공과목들을 개설하고 있으며, 석사 및 박사과정도 제공하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연구 활동에 중점을 둔다. 「US뉴스앤월드리포트」지가 선정한 2006년도 최우수 대학 1위~20위는 다음과 같다.

- 1/2 (공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 3 예일 대학
 - 4 펜실베이니아 대학
 - 5/6 (공동) 듀크 대학, 스탠포드 대학
 - 7/8 (공동)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MIT
 - 9/10 (공동) 콜롬비아 대학, 다트머스 대학
 - 11 세인트루이스 소재 워싱턴 대학
 - 12 노스웨스턴 대학
 - 13/14 (공동) 코넬 대학, 존스홉킨스 대학
 - 15/16 (공동) 브라운 대학, 시카고 대학
 - 17 라이스 대학
 - 18/19 (공동) 노틀담 대학, 밴더빌트 대학
 - 20/21 (공동) 예머리 대학, UC 버클리
- (http://usnews.com/usnews/college/rankings/rankindex_brief.php)

경영학 및 공학 분야 우수 교과과정

다수의 기관들이 미국 대학들의 순위를 매기거나 교육의 질을 평가 혹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처럼 다양한 순위들로부터 막상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려고 하면 동일한 성격의 대학들 간 비교가 이루어져 있지 않거나, 동일한 평가자료(대학 당국이 제시한 자료 등)를 기초로 하지 않았거나, 우수 혹은 최우수의 정의를 다르게 적용한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예로서 아래에 두 분야의 최우수 대학들이 열거되어 있다. 두 리스트는 다수의 평가기관들이 선정한 순위를 비교하고 전체 순위표에서 상위 20위 안에 든 대학들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순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리스트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순위와 관계없이 나열하였다.

공학 학부과정

아래 리스트는 「US뉴스앤월드리포트」지가 선정한 '2005년도 최우수 대학'과 MIT 대학원과정 학생들에 의해 취합된 '재학생들이 입학 전에 확인해야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 StudentsReview.com이 정리한 순위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코넬 대학, 뉴욕 주
존스홉킨스 대학, 메릴랜드 주
MIT, 매사추세츠 주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펜실베이니아 주
퍼듀 대학, 인디애나 주
랜슬리어 공과대학, 뉴욕 주
라이스 대학, 텍사스
스탠포드 대학, 캘리포니아

칼리지 스테이션 시 소재 텍사스 A&M 대학, 텍사스 주
어바나-삼페인 소재 일리노이대학, 일리노이 주
버지니아 공과대학 및 주립대학, 버지니아 주



경영학 학부과정

아래 리스트는 「US뉴스앤월드리포트」지가 선정한 '2005년도 최우수 대학'과 「비즈니스위크」지가 선정한 2004년도 '최우수 경영대학'(격년으로 선정), 투자수익률 관점에서 「포브스」지가 파악한 2003년도 경영대학 순위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카네기 멜론 대학, 펜실베이니아 주
코넬 대학, 뉴욕 주
에머리 대학, 조지아 주
MIT, 매사추세츠 주
뉴욕 대학, 뉴욕 주
미시건 대학, 미시건 주
채플힐 소재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노스캐롤라이나 주
펜실베이니아 대학, 펜실베이니아 주
오스틴 소재 텍사스 대학, 텍사스 주
버지니아 대학, 버지니아 주

아이비리그 대학



'아이비리그'란 미국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8개 대학을 의미한다. 여기에 속하는 대학들은 단일한 대학 대항 스포츠 리그에 참가한다는 약정을 맺고 있으며 소속 운동선수들의 학업성적에 대해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대학들은 미국 내에서 가장 긴 역사와 깊은 건물들과 캠퍼스로 대표되고 있고 그에 따라 아이비리그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8개 대학 모두 미국 최고명문에 속하며 브라운

대학, 콜롬비아 대학, 코넬 대학, 다트머스 대학, 하버드 대학, 펜실베이니아 대학,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이 여기에 속한다. 아이비리그라는 별명과 소속 대학들의 이름은 미국 고등교육의 최고봉이라는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있다.



국제적인 교육의 증진

EducationUSA는 미국 국무부 산하 교육문화국이 후원하고 전세계 170개국에서 450여 상담 및 정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인 조직망이다. 이 센터들은 미국 유학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시의적절한 종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고등교육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들로 하여금 미국 유학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담센터에는 미국에서 직접 공부했거나 미국 고등교육제도와 상담 과정에 대한 미국정부 주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 상담원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 상담원은 면담이나 전화, 이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해 매년 2,500만여 명의 해외 학생들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 상담원들은 대학 선택의 모든 단계에서 해외 학생들에게 풍부한 정보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내 각 대학들의 유형별 차이를 숙지하고 있으며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 개개인의 교육·진로 상의 필요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요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입학 절차에 대한 조언을 비롯하여 시험, 에세이 작성, 추천서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상담과 함께 학자금 지원책에 대해서도 자문한다.

또한 이들 상담원들은 미국 이민법 및 입국 규정에 대한 최신 사항들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비자 발급절차와 비자 인터뷰에 관한 조언도 제공할 수 있다. 다수의 센터들이 에세이나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워크숍, 출국 전 준비, 번역, 서류 검토 등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ttp://educationusa.state.gov/>를 방문하면 거주하는 국가에 설립된 센터를 검색할 수 있다.

국제교육주간(International Education Week)은 국제적인 교육과 교류의 혜택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다. 국무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미국 국민들을 글로벌 환경에 대비시키고 각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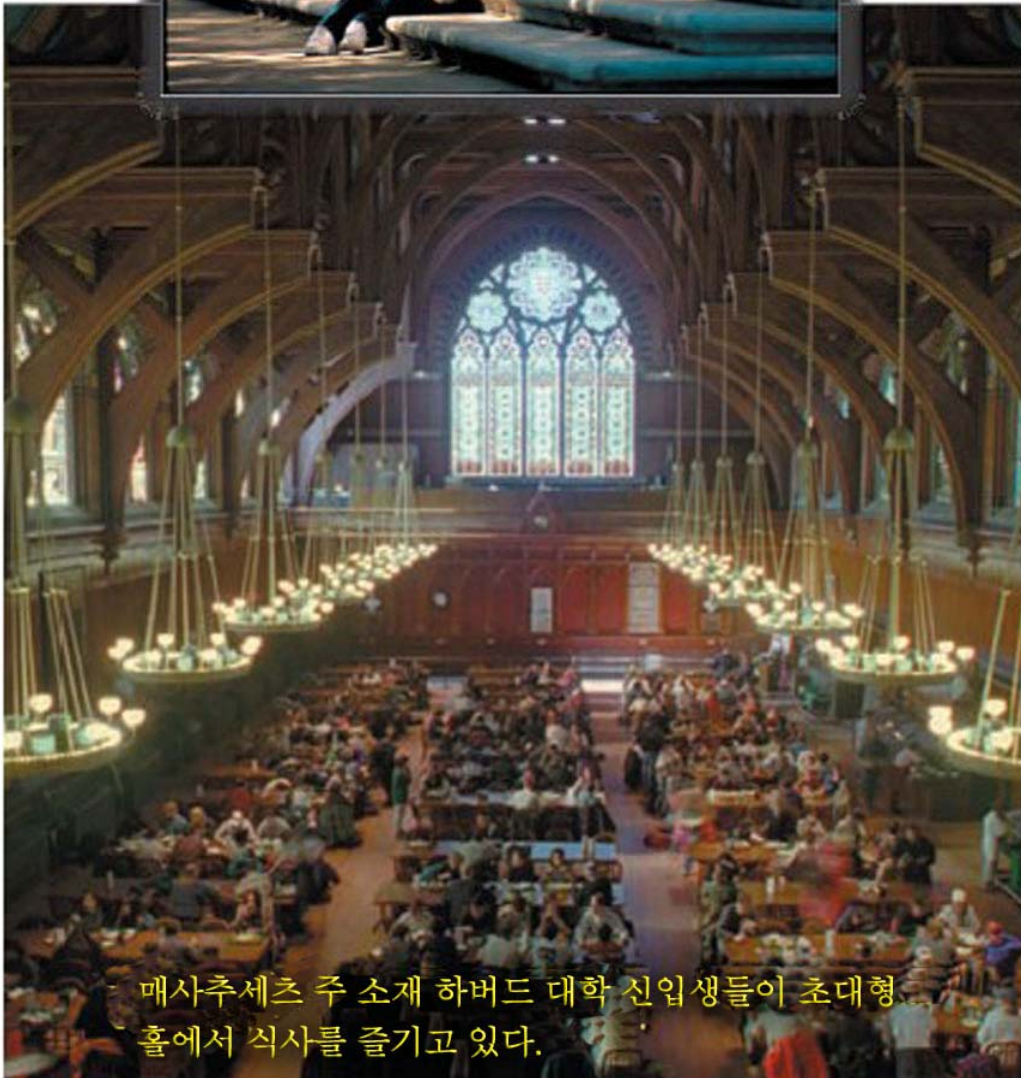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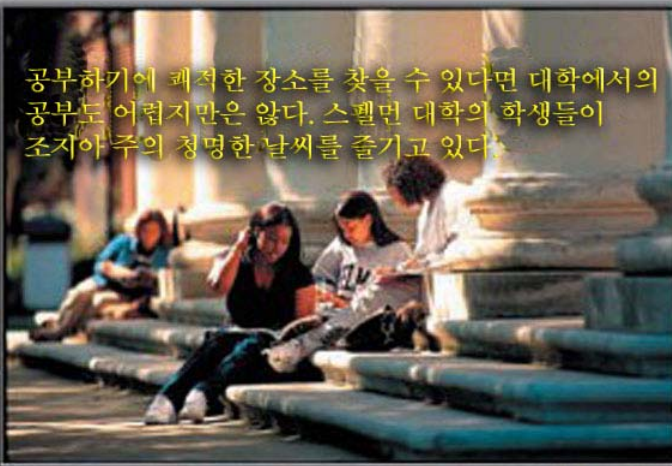
국제 교육 및 교류 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개인 및 학교, 대학, 대사관, 국제기구, 기업, 협회, 지역사회 등 다양한 단체의 참여를 환영한다.
(<http://iew.state.gov/>)



대학 생활

공부하기에 쾌적한 장소를 찾을 수 있다면 대학에서의 공부도 어렵지만은 않다. 스펀턴 대학의 학생들이 조지아 주의 청명한 날씨를 즐기고 있다.

Courtesy Spaldon College



매사추세츠 주 소재 하버드 대학 신입생들이 초대형 홀에서 식사를 즐기고 있다.

Jan Chase, KFW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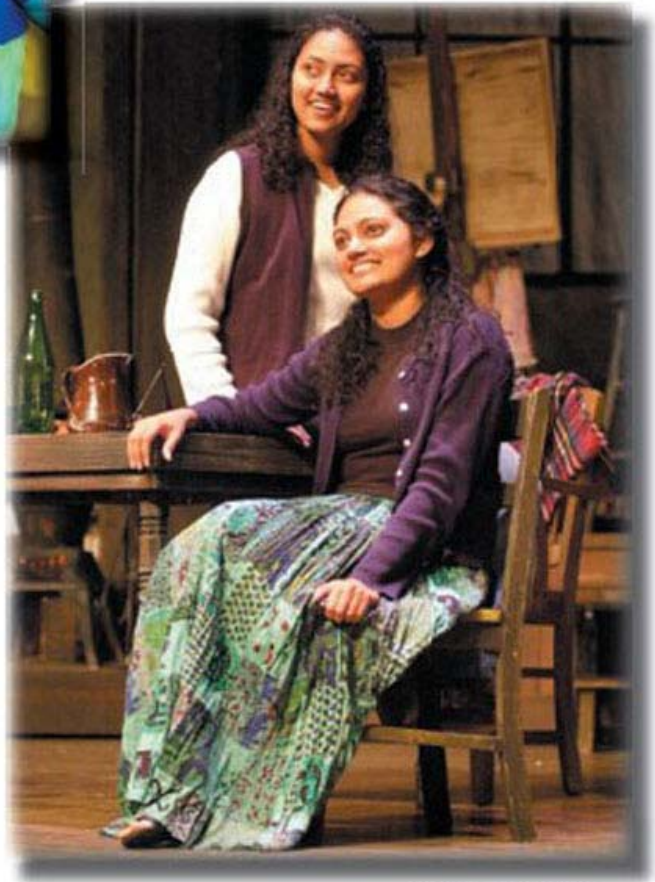
대학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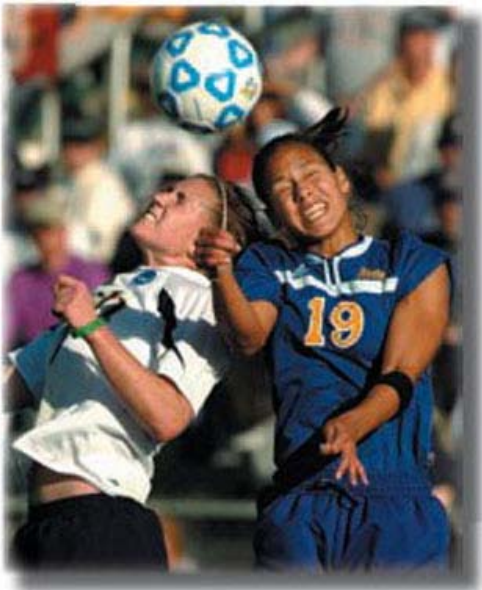
Stephen Morton, AP/WIDEWORLD

서배너 예술·디자인 대학 학생들이 조지아 대학에서 매년 주관하는 거리 예술축제 도중 ‘살아있는 예술’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다(좌측 사진).

스리랑카 출신 타랑가 구네틸레케와 에랑가 구네틸레케 자매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소재 컨버스 대학(Converse College)에서 라보엠 무대 위에 서있다(우측 사진). 쓰나미 발생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제작 시점에서 이들은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해 이미 8천 달러를 모금한 상태였고 이후 오페라 제작 과정에서 더 많은 성금조성을 희망했다.



Mary Ann Christin, AP/WIDEWORLD



Sara D. Davis, AP/WIDEWORLD

여자 축구 선수권대회에서 노틀담 대학(Notre Dame University)과 UCLA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좌측 사진).



대학 생활



Linda A. Ciresi/Stanford News Service

스탠포드 포크로리코 발레단(좌측 사진)과 재학생들에 의해 매년 자체적으로 개최되는 스탠포드 파우와우(하단 사진)는 대학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970년대에 시작된 문화 행사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포크로리코 발레단은 멕시코 문화를 홍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스탠포드 아메리칸 인디언 기구가 개최하는 파우와우는 매년 전국에서 3만 명이 넘는 참가자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Linda A. Ciresi/Stanford News Service



Courtesy Davidson College

텍사스 대학 풋볼 선수들이 권위 있는 대학풋볼대회인 로즈보울을 제패한 뒤 환호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소재 데이비스 대학의 한 학생이 서예를 실습하고 있다.





대학 생활



Ed Andriolo/AP/WWP

콜로라도 주 소재 공군사관학교(Air Force Academy) 사관 후보생들이 졸업을 축하하고 있다.



Dyana J. Herby/AP/WWP

센트럴 미시건 대학(Central Michigan University) 정치학 전공 학생들이 미시건 주 상원의 의원들을 상대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성과중심 장학금 프로그램 개정에 관한 제안을 설명하고 있다(상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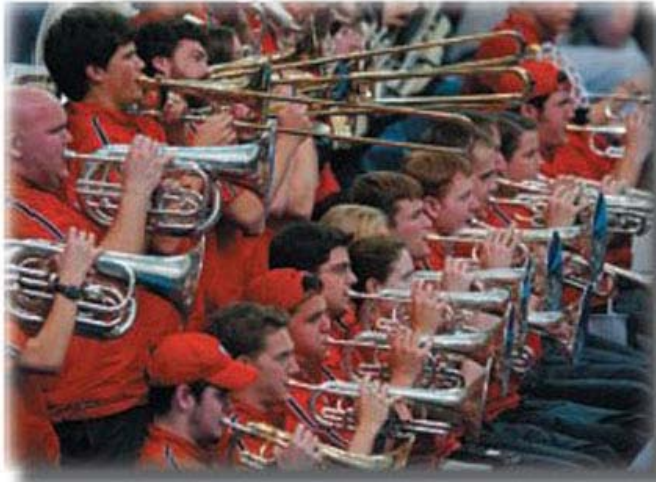
Hadi Hamid/AP/WWP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 소재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대학(Metropolitan Community College) 내 라운지에서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대학 생활



Gene Blythe, AP/WIDEWORLD

조지아 대학(University of Georgia) 밴드가 농구대회
예선에서 경기에 힘을 더하고 있다.



Matt Houston, AP/WIDEWORLD

인근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몰을 찾은 관
객들에게 신기술을 소개하는 전국 태양열 10
종 경기(Solar Decathlon)에 참가한 메릴랜드
대학(University of Maryland) 학생이 자신의 소
속팀이 설계한 주택의 일부를 제작하고 있다.



Fred Fark, AP/WIDEWORLD

미시시피 주립대학(Mississippi State University) 학생들이 9/11 테러 희생자들을
추도하기 위한 추모예배에 참가하고 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국제 교류

마이클 제이 프리드먼(Michael Jay Friedman)



리비아 루라쉬-호이겐스, 모하마드 알-알리, 매튜 프리쉬(좌에서 우)는 펜실베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제간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시사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은 국내외 정치, 경제, 학문 등의 분야에서 자신들의 진로를 개척해나가는 동시에 특정한 목표에 맞게 본인의 공부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마이클 제이 프리드먼은 미국무부 산하 국제정보프로그램국에서 편집진의 일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미 국 내 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은 통상 2학년 말에 자신의 '전공' 분야를 선택한다. 정치·경제·문화 부문에서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라델피아 주 소재 펜실베니아 대학에서는 국제관계(IR) 전공이 학생들 사이에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IR은 학제간 교과목의 하나로서 전공 학생은 다양한 분야의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지도교수의 감독 하에 30~40페이지 분량의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전공의 신청 과정은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신청자의 학점 평균은 2.8 이상(4.0 기준)이어야 하며 정치학, 서구문명, 거시·미시경제학 등의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일단 전공과정에 들어가면 국제관계이론, 국제경제학, 외교사, 국제정치학 등에 중점을 둔 전공필수 과정을 마쳐야 한다. 전공자들은 문리대 개설과목으로부터 워튼 경영대학원 과목에 이르는 다양한 선택과목들을 수강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동아시아학에서 문화인류학, 국제파이낸스까지를 포괄하는 다양한 분야를 기초로 자신의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처럼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IR은 학생들 사이에 '복수전공' 과목으로 인기가 높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국제관계와 더불어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등 다른 분야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게 된다.

국제관계 전공자는 자신이 선택한 IR 관련 주제에 대한 학사과정 졸업논문을 작성한다. 최근 선

택되는 주제로는 ‘역사적 사실이 중일 관계 및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국제상법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도전’까지 다양하다.

현재 4학년인 캐나다 토론토 출신의 매튜 프리쉬는 IR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자신의 지식 기반을 다변화’하는 과정으로서 광범위한 주제들을 탐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대학 부설 애너버그 커뮤니케이션 단과대학 (Annenberg School of Communication)에서 자신이 수강하고 있는 선택과목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동 대학에서는 ‘커뮤니케이션과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수강학생들에게 진직 대통령들이 설립한 도서관을 선택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연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프리쉬는 보스턴에 있는 존 F. 케네디 도서관과 박물관을 찾아 그곳에서 케네디의 냉전정책과 민권정책 사이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세미나 논문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가 쓴 논문은 학내지인 「펜 히스토리 리뷰(Pen History Review)」에 실렸다.

미국-쿠웨이트 이중국적자이며 국제관계와 경제학 복수전공을 선택한 모하마드 알-알리는 현재 3학년으로 자신의 성장 배경이 되는 두 문화와 환경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데 IR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인다. 국제관계와 프랑수어를 복수전공하고 있는

리비아 루라쉬-호이겐스는 미국-벨기에 이중국적자로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 미국 정부에 의해 정치적 망명자 지위를 부여받았다. 그녀는 장차 국제난민법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IR을 전공으로 선택했다.

IR 전공자들은 학생 자치로 운영되는 국제관계전공학술연합회(IRUSA)가 후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문·사회적 활동과 전문가 대비 과정에 참가한다. 현재 IRUSA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루라쉬-호이겐스는 동 연합회 후원으로 뉴욕시와 워싱턴 DC로의 방문 경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유수의 법학대학원과 국제대학원 소속 교수진들과 교류하고 있다고 말한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IR 전공자들은 졸업 후 여러 분야로 진출한다. 프랭크 플랜트 IR 과정 공동책임자는 “국제시사에 대한 지식과 국제사회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나 집필 등의 능력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이러한 인력들은 국내의 정부, 기업, 학계 등 여러 분야에서 요구된다.” ■

위에 게재된 의견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인증제도 개요

“인증이란 교육의 질에 대한 보장과 개선을 목적으로 각급 대학 및 고등교육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 절차를 의미한다. 공중보건과 안녕을 유지하고 공익을 증진할 필요성에서 시작된 미국의 인증제도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의 인증 활동은 본 목적을 위해 설립된 민영 비영리기관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한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 과정에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도 개입하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 인증 및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활동은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증기관들은 미국 내 50개 주와 해외 각국에 설립되어 있는 미국 대학들을 평가한다. 인증기관들은 법률, 의학, 경영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약학, 예술, 신문방송학 등 전문 분야들의 수천 개에 이르는 교과과정을 평가한다.”

위의 내용에 의거하여 인증기관들은 지역, 전국, 특성화 분야의 세 유형으로 분류된다. 인증제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연방정부 지원금 수혜 자격을 결정하며 대학간 편입 절차를 사례화하며 특정 교육기관에서 수여한 학위나 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http://www.chea.org/pdf/overview_US_accred_8-03.pdf]

주디스 S. 이튼
고등교육 인증위원회 회장

해외 유학생들은 편안한 환경에서 글로벌 교육 실현 중

리처드 홀든(Richard Holden)



아프가니스탄 출신인 자와드 조야(Jawad Joya)와 케냐 출신인 이벳 이사르(Yvette Issat)는 인디애나 주 리치몬드 소재 얼햄 대학이 추구하는 케이커 교 이념과 방식에 매력을 느껴 이 대학에 입학했다.

인디애나 주 리치몬드 에 있는 얼햄 대학(Earlham College)은 케이커교(친우회) 이념 아래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 교양중심 대학이다. 배움과 진리 탐구를 강조하는 이 대학은 재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탐구자가 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은 물론이고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도 글로벌 교육과 다툼의 평화적인 해결, 만인의 평등,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추구하는 삶과 지적 탐구를 병행하도록 가르친다. 리처드 홀든은 얼햄 대학에서 대학홍보국장으로서 제작한 바 있다.

얼햄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해외유학생 중 아무나 한 명을 골라 어깨를 두드려 보라. 당신이 선구자의 몸에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아담한 교양중심대학에는 지구상의 모든 분쟁을 평화롭고 공정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

한 길을 탐구하는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다. 또한 대다수 재학생들은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졸업을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자와드 세페리 조야와 케냐 출신의 이벳 이사르는 그러한 학생들의 전형적인 예다. 두 학생은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사회적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의 학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이미 실천하고 있다.

해외유학생들은 많은 경우 모국에서의 부조리한 상황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계기로 현재의 진로를 선택하곤 한다. 자와드는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상황을 희망과 불굴의 노력으로 극복한 살아있는 증거이다. 교육이라곤 전혀 받지 못한 궁핍한 시아파 교도 가정에서 태어나 소아마비로 휠체어 신세까지 지게 된 그는 카불의 혼란 속에서 암울한 미래를 바라보며 1990년대 말을 살아가고 있었다. 당시 탈리반 정권은 정책적으로 교육을 억제한 채 있었고, 여자 장애인에 대한 제약은 더욱 심했다. 현지 적십

자 단체에서 일하고 있던 한 이탈리아 의사가 그의 잠재성을 발견했고 비밀리에 그를 가르쳤다. 자와드는 어렵지 않게 여러 외국어들을 터득했고 컴퓨터 실력도 빠르게 향상됐다. 그가 13세 되던 해에는 적십자 단체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탈리반 정권이 붕괴되자 평소 교분을 쌓고 있던 의사와 2002년 알게 된 이탈리아 기자의 도움으로 자와드는 전쟁으로 피폐화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에 있는 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국제 학위를 취득한 자와드는 미국과 캐나다 소재 대학들에 입학신청서를 제출했다. 얼햄은 그에게 입학할 허용한 학문적으로 엄격한 대학들 중 한곳이었고 전액 장학금을 제안했다.

“그때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합니다” 자와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당시를 회상한다. 그는 “지금 이곳에서 다른 대형 대학들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라고 덧붙인다. 올해로 얼햄 대학에서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자와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과목들과 병행하여 과학 분야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자와드는 “지금까지 제가 겪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평화를 공부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생물학 주제들 중에는 중간 경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 역시 그러한 종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관점들에서 문제를 파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적인 방식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는 자신의 그러한 관심을 대학원로까지 이어가고 싶어하며 이후에는 대학이나 재단,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학교 내에서 과외 활동이나 사교 모임에도 적극적인 자와드는 모델 UN, 평화와 글로벌 연구 클럽,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아시아 학생 연합 등의 단체에도 참여하고 있다. 장학금 이외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그는 얼햄 대학 산하 ‘평화와 글로벌 연구(PAGS)’ 프로그램에 유급 인턴으로 참가하여 PAGS 교과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지난 여름 자와드는 미국 대학생 대표 40인 중 한 명의 자격으로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소재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최된 미일총회에 참가했으며,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본부를 둔 북미 아프가니스탄 전문직 종사자 협회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는 올해 ‘대학과 공동체, 전세계에서 평화유지와 정의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평화정의연합(National Peace and Justice Association)으로부터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상과 함께 자와드는 인디애나 주 고센 소재 고센 대학에서 개최된 플라우세어스 학생 평화총회에서 수여하는 상을 수상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탈리아, 미국을 배경으로 갖추게 된 스무 살의 자와드는 자신을 ‘세계 시민’이라고 부르며 “남은 것은 글로벌 비자를 받는 일뿐”이라고 덧붙인다.

이벳 이사르는 올해 3학년으로 얼햄 대학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 있다. 그녀는 학교의 퀘이커교 전통과 ‘비폭력, 검소, 사회정의’라는 이념에 이끌려 얼햄을 선택했다. 이벳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인도 출신 부모님 사이에 태어났다. 그녀는 “두 나라 모두 조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인도 쪽에 보다 정체성을 부여하게 되지만 말입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처음 (얼햄에) 도착했을 때는 중서부의 소도시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곧 근사한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학 공동체는 최고일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사명감도 대단합니다.”라고 말한다.

얼햄에서 이벳은 AID (Americans for Informed Democracy) 지부를 조직해서 국제적인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전세계 대학생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AID 조직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70개 학생자치 지부를 갖추고 있다. 그녀는 “한 AID 모임에 참가해서 소속 학생들과 만나고 난 뒤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다른 나라를 보다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동시에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놀라운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참여 동기를 설명한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이벳은 4차례에 걸쳐 화상회의를 주관했고 미국 학생들과 파키스탄, 호주, 필리핀, 온두라스, 스리랑카 등 세계 각국의 학생들을 연계시켰다. 회의에서 다루어진 주제들 중에는 ‘자연재해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를 모색해야 하는가’ 등이 있었다.

자와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벳 역시 모델 UN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지난해 시카고에서 열린 지역 모델UN 총회에서 그녀는 레바논 대표를 맡았다. 그녀는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해당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국제사회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들과 공동의 노력을 조율하고 타협안을 도출하는 방식을 익히는 데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벳은 얼햄 콘서트 합창단의 일원으로 음악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실현하는 데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지난 봄에는 비엔나 합창 학기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녀는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유럽의 심장부로 날아가서 웅장한 성당에서 노래한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회상한다.

미국 대학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묻는 질문에 그녀는 생각에 잠겨 눈을 굴리며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다. “개인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 중 하나는 공동체라는 교훈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나 애정이 없는 개인은 불행한 섬에 불과하니까요. 인간은 서로 보살피야 한다는 점을 배웠고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마 전부터도 알고있던 내용들이겠지만 미국에 와서 비로소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대답했다.

위에 게재된 의견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사회봉사

로빈 예거(Robin L. Yeager)



서던미시시피 대학(Southern Mississippi)과 일리노이 대학 학생들이 미시시피 주 잭슨에서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 참가하여 마무리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미 국무부 산하 국제정보프로그램국 편집진의 일원인 로빈 예거가 미국의 대학들이 재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공동체 사회봉사에 참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한다.

미국 사회에는 자원봉사의 전통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미국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배운다. 미국 전역의 대학들은 재학생들로 하여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봉사 학점이 부여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소박한 즐거움이나 아직 젊은 나이지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이 보상의 전부이다. 이러한 취지는 대학협정(Campus Compact)에서 구체화되어 있다. 해당 웹사이트(<http://www.compact.org>)의 설명에 의하면 이 협정은 '지역사회 내 사회봉사와 시민운동, 고등교육을 통한 봉사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전국 950개교 이상의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총 5백만 명의 대학생들을 대표하는—전국 연합'으로 정의되어 있다.

공동체 사회봉사 교육 사무국(OCSL)은 1992년 미시시피 주 헤티즈버그 소재 서던미시시피 대학 내

에 설립 이래 대학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공동체 봉사활동과 사회봉사 교육을 위한 자원봉사 자원센터 및 사회봉사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공동체와 캠퍼스에서 연간 2만 시간 이상의 사회봉사가 진행되고 있다. 학업적 성취,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학생 개인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지역과 국가, 세계 속에서 사회봉사의 일익을 담당할 것을 권장한다. 서던미시피 대학은 현재 이스턴미시건 대학과 연계를 맺고 있는 6개 고등교육기관 중 한곳으로 대학에서의 사회봉사 교육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 대학은 '공동체 및 사회참여를 위한 미시시피 센터'의 주관기관 역할 역시 함께 담당하고 있다. (<http://www.usm.edu/ocsl>)

어바나-샴페인 소재 일리노이 대학은 사회봉사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교양 교육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학생들을 책임 있는 시민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강의실에서의 교육과 학생 참여를 병행하고 있다. 교양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분방하면서도 책임 있는—지적이면서 사



시애틀 대학 학생이 시애틀 캠퍼스 안에 설치된 노숙자수용시설인 텐트시티에 거주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에게 수화를 가르치고 있다.

회적인—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다양한 사상들을 섭렵하고 다른 세계를 상상하며 사고에 있어서 구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함과 자신이 속한 세계와의 근본적인 연계를 맺는 과정에서의 책임감을 의미한다.

사회 참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사회와 연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테면 건축설계 스튜디오 소속 학생들은 2학기에 걸쳐 사랑의 집짓기 행사를 위해 비용이 적게 소요되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을 설계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독창적인 주택을 설계하는 원동력은 저소득가구가 적은 부담으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을 개발하는 동시에 첨단 에너지 보전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다.(<http://www.union.uiuc.edu/ovp/sle/>)

뉴잉글랜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다투머스 대학, 버몬트 대학, 세인트미카엘 대학, 노리치 대학, 샴플렌 대학, 캐슬턴 대학은 다수의 정부·비정부 기관들과 합동으로 DREAM (레크리에이션, 교육, 모험, 감독을 통한 지도) 프로그램을 창설하여 저소득가구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트머스에서 1999년 처음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현재 주 전역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다수의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계발과 지역사회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도교사와 아동이 매주 만남을 가지고 여행, 운동경기, 여름캠프, 스포츠스타나 지역 유력인사와의 교류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협력기관이나 단체로는 주정부 주택관리당국과 걸스카우트, 벤앤제리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등이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다.(<http://www.dreamprogram.org/>)

워싱턴 주 시애틀 소재 시애틀 대학은 2005년 11월 노숙자들을 위한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같은 해 2월 시애틀 대학은 한달 동안 100명의 노숙자를 대상으로 ‘텐트시티3’이라는 이름으로 이동식 캠프 행사를 주최한 경험이 있었던 까닭에 제5차 대회를 주최측으로 결정되었다. 시애틀 대학은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그와 같은 성격의 행사를 개최한 최초의 대학이었다. 이 전국대회는 고등교육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워싱턴 대학협정의 구성원들과 시애틀 대학 학생들에 의해 지역 단위로 조직되었다. 이 대회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http://www.studentsagainsthunger.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에 있는 퍼먼 대학(Furman University)의 교과과정은 전국적인 인정을



워포드 대학(Wofford College) 학생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어린이들과 연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받고 있다. 학교 웹사이트는 예비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종교학, 교육학, 예술, 철학, 사회학, 정치학을 포함한 여러 교과과정에 사회봉사 교육이 통합되어 있다.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읽기를 가르칠 수도 있고 지역사회 기반 비영리단체를 위해 마케팅 행사를 기획하거나 지역 기업인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줄 수도 있다. 구체적인 방법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수강하는 다수의 과목들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회봉사 교육은 강의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매년 800여 명의 퍼먼 대학생들은 학생 자치로 운영되는 맥스-트루드 웰러 대학교육봉사단을 통해 구세군을 비롯하여 특수아동을 위한 마이어센터, 히스패닉 기구, 걸스카우트에 이르는 45개 그린빌 단체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http://www.furman.edu/main/community.htm>)

사우스캐롤라이나 스파턴버그에 있는 인근 워포드 대학(Wofford College) 역시 사회봉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양중심대학 학생들은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역 정부기구나 단체를 매개로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일부 학생들은 개인 자격으로 자원봉사에 참가하며, 나머지 학생들은 학내 클럽이나 동아리 등 단체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워포드 학생들은 무료급식소(결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나 노숙자수용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한다. 또한 지역 내 초·중등학교에서 임시교사로 일하거나 무료진료소에서 봉사하기도 한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대학이나 지역사회 미화 활동에 참가한다.

(<http://www.wofford.edu/serviceLearning/default.asp>)

미국 내 모든 유형의 대학들은 사회봉사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미국 커뮤니티 대학 협회(AACC)에 따르면 미국 내 커뮤니티 대학의 절반 이상이 사회봉사 교육을 일정 수준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AACC는 이 주제를 다룬 여러 종의 출판물들을 발간한 바 있다. 그 중 흥미를 끄는 책자 두 가지가 8쪽 분량의 『사회봉사 교육의 지속: 최고교육책임자의 역할(Sustaining Service Learning: The Role of Chief Academic Officers)』과 86쪽 분량의 『사회적 책임과 교과과정 통합을 위한 실천 가이드(A Practical Guide for Integrating Civic Responsibility Into the Curriculum)』이다. 두 출판물 모두

http://www.aacc.nche.edu/Content/NavigationMenu/ResourceCenter/Projects_Partnerships/Current/HorizonsServiceLearningProjects/Publications/Publications.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멕시코 주에 있는 앨버커키 기술직업 대학(ATVI)은 커뮤니티 대학 수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회봉사 교육의 좋은 예를 보여준다. 이 대학은 ‘국가 및 지역사회 사회봉사 기업 보조금’을 위시하여 ‘1999년도 국가 선도상’과 ‘2004년도 지역사회 참여 사회봉사 교육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커뮤니티 대학 전국 센터상’을 수상했다. ATVI 재학생은 50개 이상의 지역 기관을 통해 청소년 프로그램, 보건 서비스, 사회복지 및 법률 서비스, 산림사업, 장애인 올림픽, 의회 사무국 2개소, 인도주의 단체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

위에 게재된 의견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곱 장의 사진: 실례를 통해 본 교육 기회

해외 주제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는 국가간 이해를 증진하는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업무를 보조할 현지 외국인 직원을 채용한다. 미 국무부는 2005년 4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현지 직원들 중 18명을 선발하여 미국 본토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 인근에 있는 대학들을 견학하고 그곳 대학들에 재학생인 해외유학생들의 생활을 둘러보는 기회가 참가자들에게 주어졌다. 본 기사는 당시 참가자들의 소감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미국 내 다양한 교육 기회들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살 루이 대상지로 선정된 이유는 이 도시가 미 남동부의 금융, 방송, 경제, 문화, 교통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명문 교육기관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18명의 참가자들은 몇 개의 팀으로 분산되어 각 팀별로 특정한 대학을 방문하여 학생들과 만남을 갖고 강의를 참관했으며 재학생들과 학교 생활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해외유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느낌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이 견학한 모든 대학들은 해외유학생 유치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학교 웹사이트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었다. 데이비슨 대학(Davidson College)의 웹사이트에서 발췌한 아래 내용은 해외유학생 유치에 학교 당국이 기울이고 있는 관심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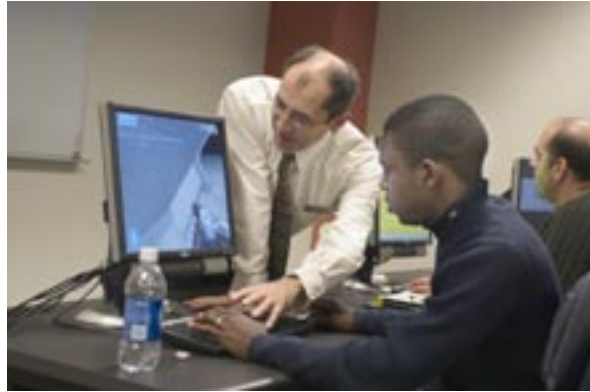
글로벌 사안들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과 문제의식은 데이비슨 대학 교육의 중요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제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공부한 여러분은 본교 대학 공동체 구성원들과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학 신청절차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7개 대학



벨몬트 애비 대학(Belmont Abbey College)은 ‘가족적인’ 교육환경과 전인적인 인격 형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 이념으로 유명하며 전교생이 1천 명에 불과한 소규모 교양중심대학이다. 샬럿에서 서쪽으로 수 분 거리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벨몬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베네딕트 수도원의 일파인 벨몬트 수도원과 연관을 맺고 있다.(<http://www.belmontabbeycollege.edu/>)

센트럴 피드몬트 커뮤니티 대학(CPCC)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으로 7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복수 캠퍼스에서 100여 개 이상의 전공을 공부하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5년 4월 5일 선포한 인력개발구상사업 대상 대학으로 CPCC를 선정할 바 있다. 전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입학한 해외유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학 당국은 높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http://www.cpcc.edu>)



CPCC의 컴퓨터 강좌 도중 교수가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데이비슨 대학에서는 매달 한 차례씩 특정한 나라의 요리와 음악, 실내 장식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빵 서빙을 돕고 있다.

데이비슨 대학은 샬럿에서 북쪽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인구 8천 명의 데이비슨에 위치하고 있다. 사립 교양중심대학으로 전교생수는 1,600명 수준이다. 1837년 장로교 재단에 의해 설립된 이래 총 23명의 로드 장학생을 배출하였다. 국무부 장관을 역임한 졸업생의 이름을 딴 20년 전통의 딘 러스크 국제학 프로그램은 이 대학이 자랑하는 수많은 교과과정 중 하나에 불과하다. 설립 당시 남학생들만을 입학시켰던 데이비슨 대학은 오늘날에는 재학생 성비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http://www.davidson.edu>)

존슨앤웨일즈 대학(Johnson & Wales University)은 스스로를 ‘미국의 직업전문 대학’이라고 칭한다. 이 대학은 미국 내 4개 주에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샬럿 캠퍼스는 2004년에 문을 열었다. 경영학, 호텔리어티(호텔 및 식당 경영), 요리 분야에서 2년제 및 4년제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학교 웹사이트는 17개국 언어로 제작되어 있다.(<http://www.jwu.edu/charlotte>)



존슨앤웨일즈 대학 학생들이 전국제빵대회에서 빵 장식 시범을 준비하고 있다.



존슨 C. 스미스 대학의 사회봉사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재학생들은 지역 아동들과 결연을 맺고 토요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공부를 돕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이나 읽기 과목에서 성적이 낮았던 아이들의 실력이 주 평균을 상회하게 되었다.

존슨 C. 스미스 대학(Johnson C. Smith University)은 역사적 흑인 대학에 속한다. 샬럿 중심부에서 겨우 1마일 떨어진 지점에 있는 널찍한 캠퍼스에 자리잡고 있으며, 헌신적이고 자상한 교수진과 교직원들의 지도와 보살핌 속에 친밀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졸업 요건으로 사회봉사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해외 9개 국가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90개 이상의 기업과 연계를 통해 인턴이나 현장 실무 경험도 쌓을 수 있다.



퀸즈 대학 학생들이 졸업식 예행연습에 참가하고 있다.

샬럿 퀸즈 대학(Queens University of Charlotte)은 본래 여자 대신학교로 설립됐다. 그러나 현재에는 장로교 계열인 이 대학원중심 종합사립대학의 학부 남학생 비율이 거의 30%대에 육박한다.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샬럿 시의 주거지구 내에 있는 퀸즈는 24개 전공 분야에서 교양 학부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전교생 수는 약 2,200명 선이며, 교수-학생 비율이 13대1에 불과하다.(<http://www.queens.edu/>)

샬럿노스캐롤라이나 대학(UNCC)에는 19,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학사 및 석사,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샬럿 시내에서 10마일 정도 떨어진 현대적인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의 중요한 경제·연구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 전역과 세계 80여 국가로부터 입학생을 받고 있다.(<http://www.uncc.edu>)

자수성가상(Self-Made Man). 캠퍼스의 대표적 상징물인 동상을 배경으로 학생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견학내용 요약

입학 및 신청. 입학 요건은 학교마다 차이를 보인다. 데이비슨 대학과 퀸즈 대학 당국은 자신들의 입학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고 설명한다. 벨몬트에비 대학은 학업성취도와 인성개발 여부를 중시하며, 존슨 C. 스미스 대학은 지원자의 성적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개성에도 지대한 관심을 둔다. 센트럴 피드몬트 대학은 거의 대다수 학생들을 위한 교과과정들을 개설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모든 교과과정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대형 대학인 UNCC와 CPCC는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교육 자원 때문에 오히려 부담감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다. 자신에게 적합한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입학 신청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입학 후의 학업 성과나 개인적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위에 소개한 각 대학들은 입학신청과 학자금 보조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경우 해외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해당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

기숙사·식사·자원·보건·보안. 센트럴 피드몬트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재학생들을 위한 캠퍼스 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숙사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숙사의 형태를 포함하여 식사 제공 방식은 각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특히 2학년부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대학들이 도서관과 컴퓨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캠퍼스 보안에 대한 정보를 게재한다. 또한 모든 대학들은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와 별도로 학교 내 의료 서비스 역시 제공하고 있다.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이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비용과 정책은 학교마다 다르다. 각 대학의 학사일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매년 변경되므로 입학예정자는 웹사이트나 기타 경로를 통해 강의 일자나 과제물 제출시한, 휴교일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학업 지원. 일부 학교는 영어 개인교습이나 작문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을 돕는다. 대다수 도서관들은 학생들에게 소장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과 연구 수행 방법을 지도한다. 모든 대학은 졸업생 취업을 목적으로 취업박람회나 기타 취업 관련 서비스를 주관하고 있다.

해외유학생 대상 서비스 및 조직. 각 대학은 해외유학생들이나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진 미국 및 해외 학생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행사조직을 담당하는 부서를 운영하거나 그와 관련된 연합이나 클럽을 두고 있다. 인종 혹은 출신지역이 같은 학생들이 설립한 학내 조직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해외유학생 서비스들을 통해 명절 등의 시기에 외국 학생과 국내 학생 가족 사이에 결연을 맺도록 주선하기도 한다. 지역의 비영리단체인 인터내셔널 하우스 등과 같은 기관을 매개로 서로 다른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간에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종교 활동. 이번 견학 참가자들이 학생들과의 대화 도중 학교에서의 종교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재학생들과 해외유학생 상담자들은 입을 모아 공립, 사립, 종교계열 대학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대학에서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며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은 환영을 받는다고 답변했다.

결론

이번 참가자들은 비록 짧은 일정의 견학이었지만 이전에 글로 읽었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귀로 들었던 내용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다 완전하게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교훈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이었다.

참가자(아래 사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모하메드 아메드 압달라 아메드(카타르 도하), 비비안 압달라(에루살렘), 파라스케비 비비안 알리모노스(호주 멜버른), 나다 A. 알-소제(이라크 바그다드), 마즈카 브로조스텍(폴란드 크라쿠프), 보리에 벤데주-벨레즈(페루 리마), 조시타 에코우에비-아마비(토고 로메), 알레안드라 에스코보사(멕시코 에르모시요), 우사와 디 카르피차이(태국 방콕), 파멜라 쿠알리(말라위 리롱웨), 라트나 무케르지(인도 첸나이), 마리아 파올라 피에리니(이탈리아 로마), 다나 폴치코바(스лова키아 공화국 브라티스라바), 카린 로스니체크(독일 뮌헨), 루이사 마리아 비아우(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베아트리스 GP 빌랭(아이티 포르토프랭스), 코넬리아 블라이쿠(루마니아 부카레스트), 조 홍(중국 광저우).



위에 게재된 의견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학의 전공 선택

린다 토바시(Linda Tobash)



대학의 강좌는 대강의일 수도 있고 소강의일 수도 있으며 공식수업일 수도 있고 비공식 수업일 수도 있다. 브라운 대학(Brown University)의 한 교수가 로드아일랜드 캠퍼스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자는 대학에서 말하는 ‘전공’과 ‘부전공’의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유용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린다 토바시는 현재 국제교육기구(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에서 대학배정서비스 국장을 맡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했던 해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사실상 내 경우에는 그 같은 결정을 세 차례나 내렸었다.”라고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예술사 교수인 데이비드 브라운리(David Brownlee) 박사는 회상한다.(http://www.college.upenn.edu/curriculum/major_choosing.html)

수

백 개의 전공과 수천 개의 대학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어떤 대학의 어느 전공을 골라야 할까? 일부 학생들의 경우 첫 번째 결정은 어떤 대학이냐가 될 것이다. 대형 종합대학이 될

수도 있고 소규모 교양중심대학이 될 수도 있으며 공학이나 과학기술, 컴퓨터공학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특수목적 교육기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도시와 교외, 산과 바다, 통학과 자취, 학자금 보조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대학축구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거나 대학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일하거나 드라마 혹은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가도 요인이 된다. 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자신이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진학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며, 그 다음 단계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학이 어느 곳인가를 검색하게 된다.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과목의 종류나 대학입학 시험 성적에 따라 대학의 전공을 결정하는 다른 나라의 대입 제도와는 달리, 미국 대학 입학생들은 아무런 제약없이 학교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입학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경쟁이 치열한 일부 교육기관들의 경우에는 소수의 우수한 학생들만이 입학할 수 있다. 입학 요건이 엄격하지 않은 대학이라



펜실베이니아 공과대학의 한 학생이 약간의 조정을 통해 거대한 기계장치를 작동시키고 있다. 사진 속의 학생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유지로 마련된 기금으로부터 장학금을 수혜하고 있다.

하더라도 간호학이나 공학 등 일부 전공들은 경쟁이 치열하여 입학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대학 입학예정자들의 선택의 폭은 매우 넓은 편이다.

대학 전공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탠포드 대학 웹사이트의 정의에 의하면, '전공이란 귀하가 학부 과정을 수행하는 동안 전문적으로 다루기를 원하는 분야를 의미한다. 귀하의 선택에 따라 앞으로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될 학문 분야가 결정된다. 전공필수와 교양필수 학점 요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학사 학위를 받게 된다. 귀하의 전공을 바탕으로 본인의 지적 능력을 개발하고, 보다 발전된 연구를 통해 특정 주제를 기초부터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전공 선택은 개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다.' (<http://www.stanford.edu/~susanz/Majors.html>)

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교양필수 과목(교양과목)과 전공필수 과목으로 구성된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대학 당국과 체결하게 된다. 이는 대학에서의 교과과정이 전공 분야의 과목들로

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실제로 총 이수과목의 50~60%는 학생이 전공에 상관없이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는 교양필수와 교양선택 과목들로 구성할 수 있다. 전공 과목에 대한 교양필수 과목의 비율은 각 대학이나 전공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대학들은 예외 없이 일정 수준의 교양필수 과목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대학의 학부 교육은 교양과목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교양인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데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모든 학사과정의 목적은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뿐 아니라 졸업생 개개인이 비판적 사고 능력과 탐구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데 있다.

다수의 대학들이 부전공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전공으로는 전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과목이 선택된다. 예를 들어 영문학 전공 학생은 연극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역사학 전공자가 정치학을 부전공을 선택하거나 혹은 그 반대인 경우도 가능하다. 비교적 작은 수의 부전공 과목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며, 전공학위 이수학점으로 '인정'(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대학에서는 지도교수와 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학생 개인에 맞춘 개별 전공을 설계하는 경우



조지아주 소재 서베너 예술·디자인 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이 해부학을 공부하고 있다.

도 있다. 점차 많은 수의 학부생들이 복수 전공을 선택하고 있다. 즉 두 가지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전공은 사회과학 분야라면 역사학과 사회학처럼 서로 연관된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다. 혹은 생물학과 문학처럼 전혀 동떨어진 분야가 될 수도 있다. 졸업생들은 장래 진로나 대학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 전공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순전히 개인적인 열정으로 복수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다. 대학에 따라 복수 전공을 동시에 이수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적으로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다소 연장되지만 입학 직후부터 전공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일은 없다. 한 전공에서 요구되는 교양필수나 교양선택 과목들 중 상당 학점은 다른 전공에서도 인정된다.

모든 교육기관들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 과목과 요구 수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재학생은 매 학기마다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학위 이수 요구되는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졸업학점 사정표나 관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 전공을 선택하나?

일부 입학생들은 자신이 공부할 분야를 확고하게 정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반면 나머지 학생들은 막연한 지식만을 갖고 있거나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재학 기간 중에 최소한 한번 이상 전공을 변경하게 된다.

미국 내 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의 거의 3분의 2가 졸업 전까지 전공을 1회 이상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기 전까지 4~5개의 전공을 놓고 고민하는 까닭에 많은 대학들이 재학생들로 하여금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공을 선택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입학 예정자들에게 입학신청 단계에서 전공을 지정하도록

하는 대학들에서조차 전공 선택란에 ‘미정’ 혹은 ‘미선택’ 난을 포함하고 있을 정도이다.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무한정 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부분의 학사 과정들은 4년 내에 120학점을 이수할 것을 요구한다(상자기사 참조)—많은 경우 2학년 말 전까지만 결정을 내리면 학위 취득에는 별 문제가 없다. 커뮤니티 대학(2년제 학사학위 수여기관)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그보다 이른 시기에 전공을 선택해야 한다. 한편 전공필수 과목 비율이 높은 전공(고도로 전문적인 분야나 의학 분야)이나 기초교과(상급과정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의 수가 많은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전공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어떻게 전공을 선택하나?

어떤 학생들은 특정 분야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다. 또 어떤 학생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분야가 있다. 간호학이나 교육학, 스튜디오 아트, 공학 등과 같이 재학 중 이수해야 할 전공 과목을 결정하는 진로를 이미 선택한 학생들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계획을 어렵게나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



‘연습 그리고 연습’은 버지니아 주 소재 매리워싱턴 대학 음악 전공 학생들의 생활의 일부분이다.

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분야를 공부해야 할지 명확하게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기 쉽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특정한 진로로 진출하기 위해 한 가지 전공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교육자들은 전공 선택에 있어 학생본인이 무엇을 공부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싶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학 자체 내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검토하면 전공 선택 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조언들을 얻을 수 있다. 다수의 대학들이 해당 학교의 웹사이트 상에 입학예정자나 재학생들이 전공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풍부한



카네기-멜론 대학(Carnegie-Melon University) 학생이 네바다 주에서 열린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신이 소속된 팀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가져온 무인자동차에 메달을 부착하고 있다.

정보와 도구들을 게재하고 있다. 일부 웹사이트는 본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교과목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많은 대학들은 타교에서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상자기사 참조).

가장 널리 인용되는 조언들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자신을 파악하라. 학업 분야에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어떤 분야를 좋아하는가? 관심분야는 무엇인가? 가치관은 어떠한가? 졸업 직후의 진로는 무엇인가—취업인가 대학원 진학인가?

- 인성검사나 적성검사에 응시한다.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나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러한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해당 국가의 미국 교육 상담/정보 센터(U.S. Educational Advising/Information Center)에 문의한다. 미국 정부는 자체 EducationUSA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계 170개국에 450개 이상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http://www.educationusa.state.gov>)
- 대학 웹사이트를 방문한다. 개설되어 있는 전공 과목들을 검토한다. 교과과정과 학위 취득 요건을 분석한다. 일부 대학의 교수들은 강의 계획과 교과과정에 대한 완벽한 개요를 온라인 상에 게재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전공에 요구되는 교과과정들의 유형과 과제들에 대해 자세히 알수록 유리하다.
- 일단 미국에 입국하면 캠퍼스 내 학과 사무실을 찾아 교수나 교직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 대학취업센터를 방문하여 최근 졸업생들이 진출한 분야를 확인하고 해당 졸업생들이 전공한 과목이 무엇인지 조사한다.
- 입학 후에는 여러 학과의 다양한 과목들을 수강한다. 전공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는지 파악한다.
-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미국 대학생 대부분은 한번 이상 전공을 변경한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흥미와 자극을 유발하지 않는 전공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 전공 선택과 진로 선택을 혼동하지 않는다. 어떤 전공을 선택하더라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워싱턴 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의 웹사이트에서는 ‘대학 교육이 학생들을 취업에 대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분야로 진로를 국한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www.washington.edu/student/ugrad/advising/majchoos.htm.)

위에 게재된 의견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전공 선택과 진로 선택

전공 선택은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전미대학위원회(College Board)가 발간한 『전공 일람(Book of Majors)』은 미국 내 3,600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900개 이상의 전공을 소개하고 있다. 자신에게 알맞은 전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참고서적들이 시중에 나와있기는 하지만 각 대학의 웹사이트 역시 유용한 정보들을 무료로 제공하므로 한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대학들은 대학학사요강 책자와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전공과 학위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각 전공에 대한 이해와 선택을 돕기 위한 방대한 양의 정보와 도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미네소타 대학의 웹사이트는 「전공 선택과 변경을 위한 지침서(A Workbook for Choosing and Changing Major)」라는 섹션에서 대학 전공과 진로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http://ucs1.ucs.umn.edu/www/majorworkbook.html>)

다양한 유형의 전공

일부 전공은 진로 선택과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반면, 나머지 전공들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 진로 개발의 측면에서 전공은 다음의 세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정 직종을 목표로 하지 않는 전공

특정 직종을 목표로 하지 않는 전공은 구체적인 진로나 특정 분야에서의 취업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단 관련 분야 경력이나 인턴십과 결합되는 경우 해당 교과목은 특정 직종을 지향하는 학위가 될 수 있다. 역사학이나 정치학, 사회학 등의 전공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유형의 전공들은 졸업 후 직장이나 대학원에서 교육을 심화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특정 직종을 지향하는 전공

특정 직종을 지향하는 전공들은 특정 분야에서의 취업을 전제로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전공을 이수하면 연수생 자격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언론학, 경영학, 수학 등이 여기에 속한다.

특정 직종에 대비한 전공

특정 직종에 대비한 전공은 특정 직무나 직업에 구체적으로 대비한다. 특정한 전문직 자격증이나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학력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개설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학이나 간호학, 공학 등이 이에 속한다.

전공 분야들의 전형적인 예

농업	데이터 프로세싱	노·장년교육학
농학	정보관리학	예술·음악·드라마 교육학
동물자원학	전산수학	가정과교육학
작물·토양학	도서관학	물리/보건/피트니스 교육학
농업경영학	박물관학	과학교육학
농장경영학		직업/산업 교육학
농기계학	교육	경영교육학
원예학	2개국어/비교문화 교육학	외국어교사 교육학
수의학	특수교육학	교양과목 교육학
	상담학	사회과학 교육학
컴퓨터공학	성인계속교육학	수학교육학
컴퓨터·정보 공학	초등교육학	컴퓨터공학 교육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미취학아동교육학	종교교육학
	청소년교육학	
공학	언어학	응용수학

우주항공공학

우주항공공학

농업공학

건축공학

생물공학

생체공학

세라믹공학

화학공학

토목공학

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지질공학

지구물리공학

산업공학.설계

재료공학

기계공학

금속공학

자원공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원자핵공학

석유공학

지도측량학

시스템분석공학

공학관련 기술

도면제작

자동차공학 및 기술

전기기술

전기기계기술

환경/에너지 제어기술

공업역학

직업안전보건기술

건설·건축기술

비행·항공운송

운송/물류

영문학

미국문학

영문학

수사학

기술 및 비즈니스 작문

민족학

아프리카학

미국학

아시아-태평양학

유럽학

라틴아메리카학

중동학

흑인학

미국인디언학

미국히스패닉학

이슬람학

유대학

외국어

외국어/외국문학

중국어

일본어

아시아 언어

독일어

스칸디나비아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중동어

러시아어

슬라브어(러시아어 제외)

학제간 연구분야

인문학

분쟁해결/평화학

여성학

군사학 및 보호서비스

군사학

형사사법 및 형사법

법집행

화재예방·보안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자원

공원관리학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레저

승마

보전관리·보호

임업생산·임산가공학

임학

야생동물·어류 관리학

생태환경학

환경학

철학, 종교학, 신학

철학

종교학·신학

종교철학

성서언어학

성서학

종교교육학

종교음악학

교회행정학

행정·법률

형사사법 및 형사법

법집행

행정학

사회복지학

법대진학과정

법률지원

자연과학

생물학

생화학

생물물리학

영어학	인문/교양학	식물학
고전 및 고전학	학제간 연구	세포·분자생물학
비교문학	맞춤형 전공	미생물학/세균학
문예창작		동물학
	수학	
	수학	
	보험계리학	
해양생물학	사회과학	시각·공연 예술
생물학적분화	인류학	공예
물리과학	고고학	무용
천문학	범죄학	디자인
천체물리학	경제학	사진학
대기과학·기상학	지리학	연극학
화학	정부학	영화학
지질학	역사학	미술
물리학	국제학	음악
지구·대기학과	정치학	실내디자인
과학기술	사회학	
	도시학	

(출처: A2zcolleges.com)

미국 대학의 학년

대부분의 학사 학위 과정은 전업 학생의 경우라면 4년 내에 이수하도록 구성된다. 학사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은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대학(또는 전문대학)이 수여하는 2년제 학위는 전업 학생의 경우 2년 내에 이수하도록 구성된다. 2년제 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취업을 하거나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

대다수 미국 대학의 한 학년은 15주 학기 2학기로 구성된다*.

미국 대학의 매 학년은 대개 8월이나 9월에 시작되어 다음 해 5월이나 6월에 끝나며 12월이나 1월에 겨울 방학이 포함된다. 6, 7월 및/또는 8월 중에는 여름학기가 개설되기도 하지만 학부생의 경우 여름학기 수강은 일반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다.

‘학년’

- 1학년: 1년차
- 2학년: 2년차
- 3학년: 3년차
- 4학년: 4년차

*기타 학년 체계로 1학기가 10~12주로 구성되는 ‘3학기’ 제도와 1학기가 10주로 구성되는 ‘4학기’ 제도가 있다. 이 경우 4학기 중 3학기를 수강해야 학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학사 학위 요건

대부분 대학의 학사 학위 과정은 120학점(4학기 제도인 경우 180학점)으로 구성된다. 위스콘신 주 밀워키 소재 교육학력 평가서비스(Educational Credential Evaluation Services)의 마가렛 샤프먼(Margaret Schatzman)은 다음과 같은 학점 요건을 개발했다.

학부생의 경우 학기당 최소한 15학점, 학년당 30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1학년: 1~30학점
- 2학년: 31~60학점
- 3학년: 61~90학점
- 4학년: 91~120학점

이론과목

1학점은 학기당(15주) 주 1회 50분 실제 수업 기준이다. 대부분의 학부 이론과목들에는 3~4학점이 배정된다. 따라서 수강생은 3학점 과목 하나 당 50분 수업 기준으로 매주 강의실에 3회 출석하게 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섯 과목을 수강하고 총 15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그러므로 매주 15시간을 강의실에서 보내게 된다. 실제 수업시간에 더하여 탐독, 과제, 도서관 검색, 퀴즈 및 시험 대비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이 포함된다.

실험, 실습, 스튜디오 (미술, 소묘, 회화 등) 과목

1학점은 학기당 주 2~4회 50분 실제 수업(수업 혹은 실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즉 수강생은 이론과목과 비교하여 2~4배 긴 시간을 실험실, 실습실, 스튜디오에서 보내야 한다. 수업시간 외에는 준비나 과제에 거의 시간이 투입되지 않으며 투입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에 그친다. 예를 들어 2학점 실험 과목을 신청한 학생은 2시간 실험 수업에 1주일에 최소한 두 번 이상 출석해야 한다.

주목할 만한 웹사이트

다음에 소개된 내용들은 미래의 대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학들의 웹사이트를 일부 선정하여 예로 든 것이다(저자가 추천한 웹사이트).

UC버클리(<http://ls-advise.berkeley.edu/choosingmajor/intro.html>)는 전공의 정의와 그에 대한 준비 및 2학년 말에 전공을 선택하는 요령을 설명하고 있으며, 전공과 진로 방향에 관련된 오해들을 분석하고 학업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미네소타 대학
(<http://ucs1.ucs.umn.edu/www/majorworkbook.html>)은 존 홀랜드 박사가 개발한 개인별 관심, 능력, 가치관, 인성 '유형' 검사표를 포함한 온라인 워크북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본인의 '유형'과 그에 적합한 전공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http://home.okstate.edu/homepage.nsf/toc/chp15_1)은 입학에 정자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과 입학 후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언을 담은 '대학 준비 개론'을 개발하였다. 여기에는 전공 선택에 관한 장이 포함되어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http://www.psu.edu/dus/md/mdmisper.htm>)은 전공에 관한 그릇된 통념들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 예로 전공 선택과 졸업 후 진로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과 특정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그 외 다른 분야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http://www.college.upenn.edu/curriculum/major_factors.html)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분야나 동기, 목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학부과정

린다 토바시(Linda Tobash)



학생들은 수업 중 토론에 참여하도록 요구받는다.

해당 교과과정이나 담당교수에 따라 학생들로부터 요구되는 활동들에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학에서는 수업시간 중 진행되는 토론과 각종 활동에 참여할 것과 학기 전반에 걸쳐 부여되는 각종 과제를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최종 학점은 대개 과제물과 중간기말 시험 결과를 기초로 산정된다. 저자는 이와 관련된 여러 사례들 중 몇 가지에 대해 설명한다. 린다 토바시는 현재 국제교육기구(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에서 대학배정서비스 국장을 맡고 있다.

입

반적으로 미국 대학의 학부과정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각각의 교수마다 본인이 추구하는 교육 방식이나 학생에 대한 기대수준에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독려한다. 해당 과목 담당교수는 통상 첫 강의 때 수강생들에게 강의계획서를 직접 나누어주거나 인터넷 상에서 강의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웹사

이트를 알려준다. 이러한 강의계획서에는 교과과정의 목적과 탐독이 요구되는 문헌 및 과제물을 비롯하여 성적평가기준, 출석 규정 그리고 많은 경우 지도교수의 교육 철학이나 수업 방식이 소개된다. 수강생들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사항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출석.** 다수의 대학에서는 개별 과목을 담당한 교수들이 수강생들에게 출석 규정을 고지한다. 다른 대학들의 경우에는 아예 교칙으로 정해 출석 규정을 시행하기도 한다(예: 모든 수강생은 3회를 초과하여 결석할 수 없다). 출석 점검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부 대학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출석률이 낮을 경우 최종 학점(상자기사 참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일부 교수들은 '깜짝'(예고하지 않은) 퀴즈를 내기도 한다. 그 강의에 출석하지 않은 수강생은 퀴즈를 치지 못하게 되고 최종 학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버지니아주 소재 이스턴메너나이트 대학(Eastern Mennonite University) 학생들이 실험실에서 강의에 참여하고 있다.

- **수업 준비.**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통해 모든 과제물들을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강생들은 그날 강의에서 다룰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미리 탐독하여 토론에 참가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수업에 임해야 한다. 때때로 스터디그룹을 조직해서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대학 생활 가이드들은 학기 중에 부여되는 과제들에 뒤처지지 않고 진도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과제의 분량이 과중해서 한번 뒤떨어지면 ‘쫓아가기’ 불가능한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쇠는 진도를 ‘따라가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 **과제물 제출.** 논문이나 프로젝트 등 과제물을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면 성적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일부 교수들은 일단 제출기한이 지나면 어떠한 경우에도 과제물을 받지 않는다.
- **수업 참여.** 수강생이 200명 이상인 대강의의 경우 교수와 학생간의 토론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개별 강좌들 중 많은 수가 소강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강의 중 토론 참여 점수가 성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수가 많다. 수강생은 교수로부터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수에게 직접 질문할 것도 요구받는다. 대다수 강좌의 목적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소화하여 자신의 주장을 형성하도록 돕는데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수강생들은 단순히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주제나 과목, 분야에 대한 자신만의 의견을 개발하고 구체화하며 그에 대한 주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는다.

특정한 학생이 앞으로 수강하게 될 강좌들의 유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해당 학생은 어떤 점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학부생이 수강하게 되는 교과 과정 유형에는 사실상 제약이 없다. 입학 첫해 100명 이상의 학생이 함께 수강하는 대강의를 신청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 이처럼 대강의 형태의 강좌는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 중에 방대한 내용을

성적평가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적평가 체계는 A~F/0~4 기준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 A = 4
- B = 3
- C = 2
- D = 1 (미국식 방식)
- F = 0 (낙제) (E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음)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적평가 체계

I = 평가보류

W = 철회

WU = 비공식 철회

Audit = 학점이나 성적평가, 출석, 과제물이 요구되지 않는 수강과목

Pass/Fail = 구체적인 성적평가 없이 ‘Pass/Fail’로만 표시

Pass/No Credit = 성적의 감점 없이 Pass/No Credit으로만 표시

각 과목 담당교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최종성적을 산정하기 위한 고유한 기준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담당교수들은 강의 첫날 강의계획서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성적평가 기준을 공개한다. 시험성적 및 연구논문 평가방법을 수강생들에게 사전에 설명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단 한 차례의 시험이나 논문으로 최종 성적을 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적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의 평가항목들을 조합하여 최종성적을 구할 수 있다.

- 수업참여율
- 퀴즈 혹은 수시시험
- 중간시험
- 기말시험
- 기말연구논문



다루고 상당량의 노트 필기를 요하게 된다. 또한 퀴즈나 시험이 자주 실시되며, 수강생들은 일대일(F2F) 방식이나 인터넷 기반 스터디 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강좌를 신청한 다른 수강생들과 스터디그룹을 구성하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강좌들은 30~40명 정원으로 구성된 소강의로서 수강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상급 강좌로 올라갈수록 수강생 수가 줄어들게 되며 10명 이하 정원으로 세미나 방식에 따라 진행되는 수업들도 있다. 이러한 소규모 강의 환경에서는 수업에 충실히 대비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다른 유형의 강의로는 실험 과목을 들 수 있다. 이 유형은 자연과학이나 수학 과목에서 주로 채택되며 실험에 초점을 맞춘다. 미술 전공 학생들은 다수의 강의를 스튜디오에서 수강하게 되며, 이곳에서 이론을 공부하고 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무용, 연기, 성악, 기악 전공 학생들은 실습과 연주에 중점을 둔 과목들을 다수 수강하게 된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소재 존슨 C. 스미스 대학의 기숙사는 학생들에게는 숙소인 동시에 공부와 휴식의 장소이다.

독자적인 공부를 위한 개인형 강좌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은 일반적으로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개인적인 연구, 논문, 교수와의 학기 중 면담 일정 등을 포괄하는 자신만의 교과과정을 구성하게 된다.

점차 많은 수의 대학들이 수강생으로 하여금 원하는 수강 방식을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오프라인(강의실에서의 일대일 수업) 방식과 온라인(원격강의) 방식이 포함된다. 실제 강의실 수업과 인터넷 수업을 병행하는 것도 이제는 그리 생소한 광경이 아니다. 굳이 원격강의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담당교수가 추가적인 강의 정보나 과제를 인터넷 상에 게재하거나 추가적인 자료들을 온라인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는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다. 따라서 각 대학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기반 교과과정들의 여러 기능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일부 학생들은 전공 과정의 일환으로 인턴십에 참가하게 된다. 이러한 인턴십의 목적은 현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공 공부를 보완하고 해당



샬롯 노스캐롤라이나 대학(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의 경영학과 학생들이 미국 대학의 전형적인 강의실 유형 중 하나인 원형극장 형태의 대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분야에 대한 학생 본인의 적성 여부를 파악하도록 돕는 데 있다. 통상적으로 인턴십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나 회사에 고용된다. 학점과 연계된 경우라면 인턴십 참가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다른 수강생들과 모임을 갖고 자신들의 인턴 경험에 대해 평가하는 기회를 갖는다. 보수가 지급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보수이거나 최소한의 금전적인 보상만을 제공받는다. 공학 전공과 같은 일부 분야의 학생들은 여름 방학 기간에 인턴십 참가가 매우 권장된다. 보통 이러한 여름 인턴십은 학점과는 관련이 없다.

또 다른 효과적인 모델 중 하나가 사회봉사 교육을 과목에 포함하거나 교과과정의 일부로 학생들의 사회봉사 참가를 제도화하는 방식이다. 사회봉사 교육은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지역사회의 문제들과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더불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외에도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심어주고 민주주의 이념과 시민정신을 고취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

위에 게재된 의견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졸업생들이 대학 학비를 대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 대학생들은 가족의 저축, 학자금 대출, 보조금, 취업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하여 학비를 충당하고 있다. 해외유학생들의 경우라면 미국 학생들처럼 이러한 방법 모두를 이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본 기사는 학자금 지원에 관한 정보들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지 소개한다.

미 국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명문 4년제 대학의 경우 숙소, 교통비, 생활비를 제하고도 연간 5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 물론 더 저렴한 등록금에 우수한 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들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4년제 대학 등록금은 최소 1만 달러 수준 이상이며 2만~3만 달러 대에 속하는 학교들이 많다. 미국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은 가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학자금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며 일부 주에서는 학자금 저축 프로그램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기도 한다.

등록금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교육

에 수반되는 다른 제반 비용들은 여기서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 역시 기억해야 한다. 건물, 장비, 교직원 임금 등 대학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을 겨냥한 실험실이나 기타 전문시설들에 엄청난 자금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다. 대학들은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를 비롯하여 재단, 기업, 산업계로부터의 지원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입학예정자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만은 사실이다. 재학생들은 등록금이나 교재, 교통비, 숙소 등 기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중등학교나 대학에서 직장을 얻을 수도 있다. 각 대학은 재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혹은 인근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커뮤니티 대학들은 직장인들이 야간이나 주말에 강의를 듣거나, 직장을 전업 혹은 파트타임으로 다니면서 학업을 전업 혹은 파트타임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2차대전 종전 이후에는 전역자들에 대한 혜택의 일환으로 'GI 법률'을 제정하여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거하여 이전까지 교육의 혜택과는 거리가 멀었던 미군 병사

들(GI라는 명칭으로 불림)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부모님의 도움이나 저축 이외에 학자금 마련을 위한 방법에는 대출과 보조금이 있다. 학자금 대출은 타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만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졸업생들은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 몇 년 동안은 융자받은 학자금을 갚는 데 전념하는 것이 보통이다. 장학금이 대표적인 예인 보조금은 상환 의무가 없는 돈이다. 하지만 수혜 대상 학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유지하거나 가정환경이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등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장학금은 학생 본인의 노력이나 경쟁을 통해 수혜자가 좌우되는 학자금으로, 대상 학생의 학업, 운동, 사회생활 등에 있어서의 성취도나 학생 본인 또는 가족이 일정 요건을 만족시켰는지 여부를 근거로 지급되기도 한다. 지원신청서 양식을 앞에 두고 어떤 방법으로 학자금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일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욕이 꺾이게 할 수도 있다. 각 대학과 고등학교, 일부 단체들에서는 학자금 조성 방법에 대해 학생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하물며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해외 학생들로서는 이 과정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많은 나라들에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은 매우 낮거나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설사 학생이 교육비를 자비로 부담하더라도 그 금액이 미국 대학들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미국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학자금을 저축해오지 않은 해외 학생들에게는 어떤 선택안이 있을까?

미국 여행을 특집으로 다룬 「e저널USA」 2005년 9월호 「미국에서 만나요」(<http://usinfo.state.gov/journals/itps/0905/ijpe/ijpe0905.htm>) 편은 비자 문제에 특히 중점을 두고 다양한 유학 관련 질문들을 짚어본 바 있다. 가나 아크라에서 국무부 소속으로 재직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교육자 문관인 낸시 W. 케테쿠(Nancy W. Keteku)는 『미국

고등교육—재정적 측면(U.S. Higher Education, the Financial Side)』이라는 기사를 썼다. 해당 기사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저널 전체를 모두 읽어볼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아래 내용은 해당 기사에서 일부 발췌한 부분들이다.

미국 유학에 관심이 있는가? 그렇다면 미국 유학 비용이 정부 차원에서 국가 교육시스템을 감독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다는 점을 발견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유학이 놀라운 투자수익률을 안겨다 준다는 점 역시 간과했기를 바란다. 가격대비가 치 면에서 본다면 미국에서의 교육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미국 유학 비용을 관리하는 데 유용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EducationUSA 센터들은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http://www.educationUSA.state.gov/centers.htm>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를 검색할 수 있다.
- EducationUSA 센터에서 구할 수 있는 책자 두 종류로 『전미대학위원회 해외유학생 핸드북(The College Board International Student Handbook)』과 피터슨이 쓴 『미국 대학 입학신청 과정(Applying to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이 있다.
- 미국 정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원: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한 자원들은 해당 국가와 미국 간에 체결된 쌍무협정에 의거하여 대사관 공보과(PAS)나 국제개발협력처(USAID)에 의해 집행된다.
- 장학금 수여 기관: 유명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으므로 극도의 주의를 요한다. 소위 장학금 기관이라는 곳에서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료를 요구할 경우 선전하는 문구나 보장이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

등록금과 전체 학비

등록금은 미국 내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비용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등록금은 매 학기 고정적으로 납부하는 항목과 선택한 과목에 따라 납부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더하여 숙소, 서적, 기타 자료, 식사, 의료보험, 주차를 포함한 교통, 통학, 통신, 잡비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소요된다. 주립대학의 경우 타 주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등록금 가산율이 해외유학생에게는 더 높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한 가지 고려할 요인은 투입되는 시간이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은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설사 직장을 병행한다 하더라도 주당 근무시간이 적고 정규직에 비해 효율이 낮은 것이 보통이다. 다음 페이지에 소개된 워크시트를 통해 예비대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에 필요한 총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학자금 예산안 작성 사례

비용항목	비용	학년수	총계
신청비용			
입학시험			
등록금			
추가등록비용			
기숙사			
식비			
교재 소모품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 관련 비용			
지역 교통비			
통학 교통비			
학생증 교체비용			
스포츠센터 회원비			
원고료			
도서관 사용료			
복사비			
마이크로필름 비용			
문화활동비			
총계			

학자금 조달 방법의 예

마르티나 쉘츠(Martina Schulze)

해외유학생, 그 중에서도 대학원생이 이용할 수 있는 학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해당 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언을 소개한다. 마르티나 쉘츠는 함부르크 주독미국총영사관의 문화공보관인 동시에 함부르크 미국학연구소(Amerikazentrum)의 교육자문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경우 부분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체육특기자장학금이나 학자금 용자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 대학원생은 강의조교나 연구조교, 행정 조교직에 지원할 수 있으며, 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에서 펠로우십이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학원생 역시 학자금 용자를 받을 수 있다.

매년 세계 각국에서 5십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미국 내 대학에 입학신청을 하고 있다. 국제교육기구에 의하면 이 중 약 67%가 학비를 가족들로부터 보조 받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학생들의 경우 학자금 마련이 입학신청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미국 내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해외유학생들은 연간 16,000달러에서 46,500달러를 등록금과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다.

학자금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가능하면 입학하기 15~18개월 전부터 조사와 준비를 시작한다. 본국이나 본교에서 제공되는 장학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되도록 이른 시기에 신청한다.

직접 조사에 착수한다. EducationUSA의 지원을 받는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어느 수준까지의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는 미국 대학 및 학교 소개 참고자료들을 탐독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4~6개교의 지원 대학에 대한 가능한 광범위하게 수집한다. 만약 대학원과정에서 입학할 예정이라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을 지도하게 될 교수에 대해 미리 알아둔다. 이들 지도교수는 조교 선발 과정에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원서류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지원학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유학생들은 어디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자비를 제외하고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주요한 재원으로는 해당 대학에서 제공하는 지원책을 이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전체 대학 중 23%가 그러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본국 정부나 대학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2.4%로 조사되어 있다. 하지만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학부과정 해외유학생의 10%만이 지원 대학으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는 반면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41%로 급증한다. 이는 대학원생들 중 상당수가 박사과정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조교나 강의조교로 근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석사과정에 비해 박사과정 지원자들에 대한 학자금 보조가 더 많으며,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분야에 비해 이공계에 대한 지원 규모가 더 크다. 또한 해외유학생들의 경우 전문인력양성학과 지원자에 비해 순수학문 전공자들에 대한 지원의 폭이 넓은 것이 일반적이다. 재학 2년차부터 학자금 지원 수혜 기회가 증가한다.

학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거부되었다면 학교 사무실이나 입학처에 근무하는 구체적인 담당자 앞으로 두 번째 지원신청서를 보낸다. 처음 시도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전화를 걸어 신청서가 반려된 이유를 확인하고 다음 해에는 미비점을 보강하여 보다 완벽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점은 해외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지원책들은 매우 제한적이며 경쟁이 치열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실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TOEFL, SAT, GMAT, GRE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일정한 자금 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거나 자신의 재정적 필요를 설명한다.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완벽하고 깔끔하게 작성된 지원신청서를 제출한다. ■

미국 현지에서 어떤 종류의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학부과정 해외 유학생들은 주로 사립대학의

위에 게재된 의견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커뮤니티 대학에 입학하는 해외 유학생들을 환영

제니퍼 버참(Jennifer Burcham)
(「Community College Times」 게재 기사)

재니스 제이콥스(Janice Jacobs) 국무부 비자 담당 부차관보는 제57차 2005년도 NAFSA(국제교육자협회·구 전국해외유학생상담자협회) 연차총회에서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유학생들에 대한 ‘문호’는 활짝 열려 있으며, 각국 주재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들에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관련 업무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콥스 부차관보는 9/11 테러 이후 비자 발급 정책에 일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비자 때문에 미국 여행이나 유학의 길이 완전히 막혔다는 생각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비자 처리 절차의 변경과 관련된 대중의 인식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다”고 말하고 “국무부는 해외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연구원, 기업인 등의 미국 입국이 증가하도록 조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커뮤니티 대학에 입학하는 해외유학생 유치—국무부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행해진 총회 연설에서 제이콥스 부차관보는 국제 교육 분야에서 커뮤니티 대학들이 담당해온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그녀는 “저는 전국의 커뮤니티 대학들이 해외유학생들에게 커뮤니티 대학 제도 하에서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년제 대학을 지원하는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사례가 빈발한다는 인식이 퍼져있다는 관련 학교 관계자들의 우려에 대해, 제이콥스 부차관보는 국무부 지시로 각국 주재 영사관 관리들에게 개별 학교마다 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상이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고 답변했다. 또한 영사관 관리들로 하여금 광범위한 미국 교육기관들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개별 사안들을 각각의 상황에 맞게 심사할 것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부차관보는 2001년 9월 이후 350명 이상의 영

사관 인력을 비자 심사 업무에 새로 충원했으며, 현재 제출된 예산안에 121명의 추가 영사관 직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거의 대부분의—약 97%—비자 신청건은 2일 내에 처리되며, 안보상의 이유로 특별 심사를 요하는 2.5%에 대한 심사 절차 역시 크게 단순화되었다고 제이콥스 부차관보는 말했다. 그녀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특별 심사를 요하는 2.5%의 신청자들에게 대해서도 비록 낮은 비율이지만 결과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년 미만 하더라도 민감한 기술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평균 심사기간이 약 74일에 달했지만, 현재는 유사한 사안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4일로 단축되었으며 앞으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차관보는 미국 국제교육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2003~2004학년도 기준으로 미국 대학에 재학중인 해외유학생수가 572,000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 중 인도와 중국 출신 유학생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해외 학생들의 수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은 세계에서 해외유학생수가 가장 많은 국가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그녀는 “우리가 반드시 불식시키고자 하는 오해는 미국이 해외유학생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강조하고 “이는 사실과 다르며 무스카트든 몸바이든 출신 지역을 불문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문호는 활짝 열려 있다”고 역설했다. ■

해외유학생 상담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1. 버지니아 주 소재 이스턴메너나이트 대학(Eastern Mennonite University)의 학생이 상담자로부터 조언을 듣고 있다.

2. 나이지리아 출신의 역사학자인 타주딘 그바다모시(Tajudeen Gbadamosi)는 테네시 주 소재 르모인-오언 대학(LeMoyne-Owen College)에서 풀브라이트 상임연구원 자격으로 1년 간 머물고 있다. 역사적 흑인 대학의 한곳인 이 대학은 이슬람 역사와 문화, 문명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권위자를 초빙하게 된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3. 한국 학생들이 미시시피 대학에서 열린 해외유학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고 있다. 하루 종일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들은 대학 생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첫 학기 등록을 마치게 된다.



현 국제교육자협회(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ors)의 전신인 전국해외유학생상담자협회(NAFSA)는 국제 교육을 뒷받침해왔다. 2000년도에 NAFSA의 지원을 받아 「Intercultural Press」지가 발간한 책자인 『해외유학생 상담 전문직(The Profession of Foreign Student Advising)』은 해외유학생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해외유학생 상담자들은 전세계의 학생 및 연구자들과 협력한다. 필요한 정보와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학생이나 연구자들로 하여금 미국 유학을 통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담자들은 학생이나 연구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거기에 맞게 조언을 제공하며 유학 준비 과정에서 접촉하게 되는 모든 기관들과의 사이에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해외유학생 상담자들은 미국인들이 ‘해외유학생’이라고 부르는 개인들뿐만 아니라 미국 학생과 교수진, 교직원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주민, 국내외 정부기관 관리, 미국 내 해외유학생과 연구자들을 후원하는 다양한 기관들과 접촉한다. 상담자들은 해당 지역의 현지 미국인들과 해외유학생 및 연구자들 사이에 건설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도록 매진한다.

해외유학생 상담자들은 교육의 국제교류를 통해 그 혜택을 대학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 세계로 확대시키기 위해 일익을 담당한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국민들이 다른 나라 국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그 과정을 통해 상호의존적인 세계 속에서 보다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의식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추가적인 정보는 <http://www.nafs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문헌 목록

미국의 대학 교육에 관한 추천 문헌 목록

미국정부. 교육문화국. *If You Want to Study in the United States* 시리즈. Washington, DC: 2002-2003.

<http://www.educationusa.state.gov/pubs.htm>

시리즈의 제1~3권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발간되어 있다.

제1권: *Undergraduate Study*, 제2권: *Graduate and Professional Study and Research*, 제3권: *Short-Term Study, English Language Programs, Distance Education, and Accreditation*. 제4권: *Getting Ready to Go: Practical Information for Living and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는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로 발간되어 있다.

<http://www.educationusa.state.gov/life/pubs.htm>

Andrews, Linda Landis. *How to Choose a College Major*. New York: McGraw-Hill Companies, 2006. (출간 예정)

Ashley, Dwayne and Williams, Juan. *I'll Find a Way or Make One: A Tribute to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New York: HarperTrade, 2004.

College Board. *International Student Handbook 2006*. New York: The College Board, 2005.

College Board. *Trends in College Pricing, 2005*. New York: The College Board, 2005.

http://www.collegeboard.com/prod_downloads/press/cost05/trends_college_pricing_05.pdf

College Board. *Trends in Student Aid, 2005*. New York: The College Board, 2005.

http://www.collegeboard.com/prod_downloads/press/cost05/trends_aid_05.pdf

College Board. *The College Board Book of Majors*. New York: The College Board, 2004.

CSIET: Council on Standards for International Educational Travel. *Advisory List of International Educational Travel and Exchange Programs*. Alexandria, VA: CSIET, 2005.

<http://www.csiet.org/mc/page.do?sitePageId=748>

Denslow, Lanie; Tinkham, Mary; and Willer, Patricia. *U.S. Culture Series: Introduction to American Life*. Washington, DC: NAFS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ors, 2004.

http://www.nafsa.org/publication.sec/international_students/u.s.culture.series

Forest, James J.F. and Altbach, Philip G., eds.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Higher Education*. New York: Springer, 2005. <http://www.higher-ed.org/handbook/TOC.pdf>

Forest, James J.F. and Kinser, Kevin.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 Encyclopedia*. New York: ABC-CLIO Publishers, 2002.

Gose, Ben et al. "Community Colleges: Special Issue."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vol. 52, no. 10, 28 October 2005, pp. B1-B44.

Green, Madeleine and Turlington, Barbara. *A Brief Guide to U.S. Higher Education*.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2001. http://www.acenet.edu/bookstore/pdf/2001_brief_guide.pdf

Greene, Howard et al. *The Public Ivies*. New York: HarperTrade, 2001.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Special Section." *Ebony*, vol. 60, no. 11, September 2005, pp. 73-130.

Independent Colleges and Universities: A National Profile.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Colleges and Universities, 2004. <http://www.naicu.edu/pubs/2004Profile.pdf>

NAICU, Council of Independent Colleges, Foundation for Independent Higher Education가 공동으로 후원한 본 책자는 대학 재학생 및 교직원 현황, 통계자료, 프로파일을 제공한다.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Funding for United States Study Series: Funding for U.S. Studies: A Scholarship Guide for Europeans*. New York: IIE, 2005. <http://www.iiebooks.org/funforunstat.html>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Funding for United States Study Series: Funding U.S. Studies: Graduate and Postgraduate Opportunities for Latin Americans*. New York: IIE, 2004. <http://www.iiebooks.org/funforunstat.html>

Kalmar, George, ed. *Foreign Students' Guide to American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ies*. Santa Monica, CA: International Education Service, [2005]. <http://www.ies-ed.com/>

Lanier, Alison Raymond et al. *Living in the U.S.A.* 6th ed.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2004.
Latimer, Jon, ed. *Applying to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1998: A Handbook for International Students*. Lawrenceville, NJ: Peterson's, 1997.

Lipka, Sara. "Fulbright Connects With the Muslim World."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vol. 52, no. 11, 4 November 2005, pp. A47-A49.
금년도 풀브라이트 수상자 3인의 프로파일과 관련 도표 포함.

Open Doors: Statistics on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New York: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2005.
일부 도표는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함: *Open Doors: Report on International Education Exchange*: <http://opendoors.iienetwork.org/>

Riley, Naomi Schaefer. *God on the Quad: How Religious Colleges and the Missionary Generation Are Changing America*.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5.

Rothblatt, Sheldon. *The Living Arts: Comparative and Historical Reflections on Liberal Education*.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2003.

Smithee, Michael; Greenblatt, Sidney L.; and Eland, Alisa. *U.S. Culture Series: U.S. Classroom Culture*. Washington, DC: NAFS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ors, 2004.
http://www.nafsa.org/publication.sec/international_students/u.s.culture.series.1

Twelve Facts That May Surprise You About America's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Colleges and Universities, 2003.
<http://www.naicu.edu/pubs/NAICU12FactsNew.pdf>

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Community Colleges in the United States." *eJournal USA: U.S. Society & Values*, vol. 7, no. 1, June 2002, 26 pp.
<http://usinfo.state.gov/journals/itsv/0602/ijse/ijse0602.htm>

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See You in the U.S.A." *eJournal USA: Foreign Policy Agenda*, vol. 10, no. 2, September 2005, 52 pp.
<http://usinfo.state.gov/journals/itps/0905/ijpe/gough.htm>

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The United States in 2005: Who We Are Today." *eJournal USA: Society & Values*, vol. 9, no. 2, December 2004, 48 pp.
<http://usinfo.state.gov/journals/itsv/1204/ijse/ijse1204.htm>

미국의 고등교육제도나 유학에 관해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If You Want to Study in the United States』 시리즈를 기초로 구성된 아래의 온라인 관련문헌들을 참고할 것.(Washington, DC: 2003-2004):

- 대학원과정: <http://www.educationusa.state.gov/graduate/biblio.htm>
- 미국에서의 생활: <http://www.educationusa.state.gov/life.htm>
- 연구원들을 위한 기회: <http://www.educationusa.state.gov/scholars/biblio.htm>
- 출국전 정보: <http://www.educationusa.state.gov/predeparture/biblio.htm>
- 특성화 전문인력양성과정: <http://www.educationusa.state.gov/professional/biblio.htm>
- 단기 유학: <http://www.educationusa.state.gov/study/biblio.htm>
- 학부과정: <http://www.educationusa.state.gov/undergrad/biblio.htm>

미 국무부는 위에 소개된 기타 기관이나 단체가 발간하는 자료의 내용이나 입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인터넷 주소들은 2005년 11월을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인터넷 자료 목록

미국의 대학 교육에 관한 추천 웹사이트 목록

국무부

EducationUSA 산하 교육문화국

<http://www.educationusa.state.gov/>

‘미국에서의 고등교육을 위한 당신의 지침서’라는 부제 아래 EducationUSA는 ‘대학을 물색하고 있는 해외유학생들을 위해 풍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세계 170개국에 450개 이상의 상담·정보 센터(<http://www.educationusa.state.gov/centers.htm>)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센터들을 통해 ‘미국 유학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시의적절한 종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고등교육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들로 하여금 미국 유학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인증제도, 대학 검색, 비자 관련 정보, 학자금 지원, 풀브라이트 장학금, 국무부 교육문화국 사업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2005년도 국제교육주간

<http://iew.state.gov/>

국제적인 교육과 교류를 증진하고 기념하기 위해 국무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

국제정보프로그램

미국 유학

http://usinfo.state.gov/scv/life_and_culture/education/study_in_the_us.html

영사국: 비자

http://travel.state.gov/visa/visa_1750.html

미국 유학: 비자

<http://www.unitedstatesvisas.gov/studying.html>

교육부

USNEI (U.S. Network for Education Information)

<http://www.ed.gov/about/offices/list/ous/international/usnei/edlite-index.html>

국제 교환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미국 교육제도에 관한 기초 자료

연방학생지원제도: 해외유학생

<http://studentaid.ed.gov/PORTALSWebApp/students/english/intl.jsp>

IPEDS College Opportunities Online

<http://nces.ed.gov/ipeds/cool/index.asp>

고등교육청(Office of Postsecondary Education)

인증교육기관 데이터베이스

<http://ope.ed.gov/accreditation/>

이민국

어떻게 하며 미국에서 학생 신분을 획득할 수 있는가?

<http://uscis.gov/graphics/howdoi/academic.htm>

미국의 소리(VOA)

미국의 글로벌 대학 포럼

http://www.voanews.com/english/AmericanLife/global_college_forum.cfm

미국 대학에 재학중인 해외유학생을 주제로 한 주간 라디오 시리즈

백악관

히스패닉계 미국인의 교육적 우수성을 위한 이니셔티브

<http://www.yic.gov/>

역사적 흑인 대학 이니셔티브

<http://www.ed.gov/about/inits/list/whhbcu/edlite-index.html>

트라이벌 대학 이니셔티브

<http://www.ed.gov/about/inits/list/whct/edlite-index.html>

기타 자료

미국 커뮤니티 대학 협회

<http://www.aacc.nche.edu/>

미국교육위원회

<http://www.acenet.edu//AM/Template.cfm?Section=Home>
미국 내 모든 고등교육기관들의 활동을
조율하는 주요기관으로 국제적인 사업들도 다수
후원.
<http://www.acenet.edu//AM/Template.cfm?Section=International>.

아메리칸 인디언 고등교육 컨소시엄
<http://www.aihec.org/>

미국-중동 교육·훈련 서비스(AMIDEAST)
<http://www.amideast.org/>

미국대학협회
<http://www.aacu-edu.org/>

대학협정
<http://www.compact.org>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지역사회 봉사, 시민정신,
사회봉사 교육의 함양'을 목표로 설립된 전국
대학 총장들의 모임.

고등교육인증위원회(CHEA)
<http://www.chea.org/>
인증 교육기관 및 교과과정 데이터베이스
<http://www.chea.org/search/default.asp>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http://chronicle.com/>
회원이입을 요하며 무료 정보는 제한적으로
제공
<http://chronicle.com/free/>

전미대학위원회
<http://www.collegeboard.com/splash>

전미 커뮤니티 대학 협회
<http://www.cc-usa.org/>

자립대학 위원회
<http://www.cic.org/>

국제 교육 교류 위원회(CIEE)
<http://www.ciee.org/>

eduPASS!
<http://www.edupass.org/>

고등교육 자료 허브
<http://www.higher-ed.org/>

히스패닉 대학 협회
<http://www.hacu.net/>

국제교육기구
<http://www.iie.org/>

전미 고등교육 기회평등 협회(NAFEO)
<http://www.nafeo.org/about.htm>

국제교육자협회(NAFSA)
<http://www.nafs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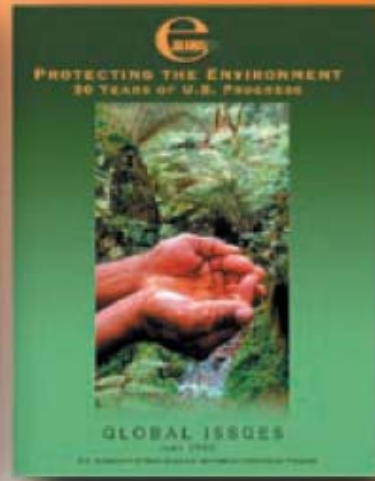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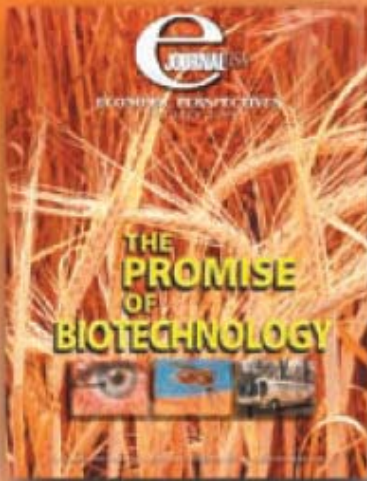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Universities and Land-Grant Colleges
<http://www.nasulgc.org/>

오스틴 텍사스 대학
미국 고등교육 웹
<http://www.utexas.edu/world/univ/>
미국 내 종합대학, 커뮤니티대학, 대학일람, 지역
인증기관으로의 인터넷 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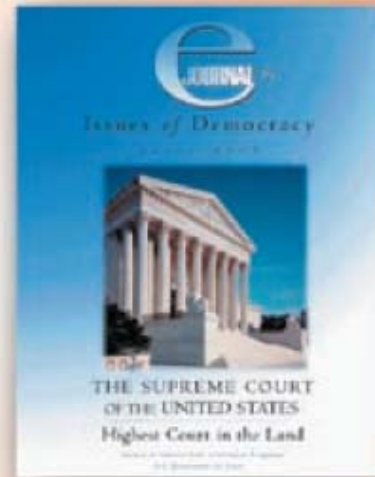
미 국무부는 위에 소개된 기타 기관이나 단체가
발간하는 자료의 내용이나 입수와 관련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인터넷 주소들은 2005년
11월을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 및 주립대학 스타디움에 모인 관중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학 스포츠는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다.



**A
MONTHLY
JOURNAL
OFFERED IN
MULTIPLE
LANGUAGES**



REVIEW THE FULL LISTING OF TITLES AT
<http://usinfo.state.gov/journals/journals.htm>